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2 (1996)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최근, 필자의 목회의 첫사랑을 쏟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오렌지사랑의교회를 12년간 목회할 때 매주 주보에 실린 설교요약을 검토하면서 그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오늘날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 생명샘(living Stream)이란 제목으로 편집하여 서로 나누며 캄보디아 선교지의 교회를 섬기는 캄보디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목적에서 한영으로 편집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목회를 시작한 후 5년이 되기까지 필자는 개혁신앙을 증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스스로 평가할 때 변화되지 않는 교우들의 영적 삶을 보고 슬럼프에 빠진 일을 기억한다. 그 대답을 얻기위해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3년동안 공부함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되었다. 강해설교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프로젝트를 목회에 적용하여 1996년도 졸업할 때, 나의 목회사역과 나의 신학적 이론이 더욱 성경적 신학과 신앙으로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

1994년 매주마다 설교한 내용이 현재의 나의 신학과 신앙과 같은 흐름을 타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여 편집하였다. 그 때는 단지 한글을 아는 사람을 대상하여 기록했는데 지금은 영어권 독자나 나아가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크마어로 번역되어 나눌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본래 생명샘이란 제목의 3권의 책은 브니엘 장로교회와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틈틈히 적어 놓은 나의 신앙 단상들을 모은 것인데, 여기서는 오렌지 사랑의 교회 목회할 때 강단에 외친 설교의 요약들 그 이름으로 편집하였다.

AI 의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나의 글들을 번역함과 편집하는데 이용되었으나 그 모든 내용은 필자의 검토를 통해 되었기에 나의 번역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 대한 나의 이해와 강조점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신앙경주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 목표, 복음전파에 이르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적은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2004. 6.25.

주 안에서

전화령 목사, 미국 포모나 서재에서

목차

1.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라 (막 8:1-10) 1996. 12. 15
Learn the mercy of Jesus (Mark 8:1-10)
2.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사9:1-7) 1996. 12.25
Jesus came as the Prince of Peace (Isaiah 9:1-7)
3. 표적보다 주님을 (막8:11-22) 1996.12.29 주
The Lord rather than signs (Mark 8:11-22)
4. 좋은 날을 보기 위하여 (벧전3:13-22) 1996.1.21 주
To see good days (1 Peter 3:13-22)
5. 거짓교훈을 삼가하라 (벧후2:1-10) 1996.4.21
Beware of false teaching (2 Peter 2:1-10)
6. 주의 강림을 잊지말라 (벧후3:1-7) 1996.5.19 주
Do not forget the coming of the Lord (2 Peter 3:1-7)
7. 올바르게 자라라 (벧후 3:14-18) 1996. 6. 2
Grow Up Properly (2 Peter 3:14-18)
8. 광야의 외치는 소리 (막1:1-8) 1996.6.9 주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Mark 1:1-8)
9.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막1:9-13) 1996.6.19 주
The Son of God who came in the form of a sinner (Mark 1:9-13)
10. 하나님의 복음 (막1:14-15) 1996.6.23 주
The Gospel of God (Mark 1:14-15)
11. 부르심에 응답하라 (막1:16-20) 1996.6.30 주
Answer the call (Mark 1:16-20)
12. 권세있는 새 교훈 (막1:21-34) 1996.7.7 주
Powerful New Teaching (Mark 1:21-34)
13. 기도로 왕의 은혜를 받는다 (막1:35-45) 1996.7.14 주
Receive the king's grace through prayer (Mark 1:35-45)
14.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막2:1-12) 1996.7.21 주
The one who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Mark 2:1-12)
15. 성경적 메시아관 (막2:13-18) 1996.7.28 주
Biblical Messianic View (Mark 2:13-18)

16. 안식일의 주인 (막2:23-3:6) 1996.8.18 주
Lord of the Sabbath (Mark 2:23-3:6)
17. 교회의 사도적 사명(막 3:7-19) 1996. 8. 25
The Apostolic Mission of the Church (Mark 3:7-19)
18.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 (막3:20-35) 1996.9.1
View of the Family in the Kingdom of God (Mark 3:20-35)
19. 약속된 백배의 열매 (막4:1-20) 1996.9.8 주
The promised hundredfold fruit (Mark 4:1-20)
20. 세상의 등불 (막4:21-25) 1996.9.15 주
The lamp of the world (Mark 4:21-25) 1996.9.15 week
21. 하나님나라의 절대능력 (막4:26-34) 1996.9.25 주
Absolut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Mark 4:26-34)
22. 광풍을 잔잔케하는 능력 (막4:35-41) 1996.9.29 주
The power to calm the storm (Mark 4:35-41)
23. 영계의 주권자 (막5:1-20) 1996.10.6 주
Sovereign of the spirit world (Mark 5:1-20)
24. 생명의주, 예수 (막5:21-24, 35-41) 1996.10.13 주
Jesus, the Lord of Life (Mark 5:21-24, 35-41)
25. 치료하는 교회 (막5:25-34) 1996.10.20. 주
Healing Church (Mark 5:25-34)
26. 전도자여 일어나라 (막6:1-3) 1996.10.27 주
Rise up, evangelist (Mark 6:1-3)
27. 능력의 주 예수 (막6:14-29) 1996.11.3
Jesus, the Lord of Power (Mark 6:14-29)
28. 감사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다 (막6:30-44) 1996.11.10
Gratitude is the secret to an abundant life (Mark 6:30-44)
29.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막6:45-56) 1996.11.17
He is the King of kings! (Mark 6:45-56)
30. 영전승리자의 감사 (막7:1-13) 1996.11.24 추수감사주일
Gratitude from the victor (Mark 7:1-13)
31.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막7:14-23) 1996.12.1 주
Guard your heart (Mark 7:14-23)

32. 숨길 수 없는 주의 능력 (막7:24-37) 1996.12.8
The power of the Lord cannot be hidden (Mark 7:24-37)
33. 예수님 긍휼을 배워라 (막8:1-10) 1996. 12.15
Learn the mercy of Jesus (Mark 8:1-10)
34. 마귀를 이기는 방법 (벧전5:7-9) 1996.2.25 주
How to overcome the devil (1 Peter 5:7-9)
35. 든든한 구원 (벧전5:10-11) 1996.3.4 주
Secure salvation (1 Pet 5:10-11)
36. 참된 은혜 (벧전5:12-15) 1996.3.10 주
True Grace (1 Peter 5:12-15)
37.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벧후1:1-2) 1996.3.17 주
God's grace and peace (2 Peter 1:1-2)
38. 이 놀라운 구원계획 (벧후1:3-4) 1996.3.24. 주
This amazing plan of salvation (2 Peter 1:3-4)
39. 택하심을 확인하라 (벧후1:5-11) 1996.3.31 주
Confirm your election (2 Peter 1:5-11)
40.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다(벧후1:12-21)
Think of the glory of resurrection (2 Peter 1:12-21)
41. 충성된 종아 (벧전5:1-5) 1996. 2. 18
Faithful servant (1 Ben 5:1-5)
42. 고난은 영광의 관문이다 (벧전4:12-16) 1996.2.11
Suffering is the gateway to glory (1 Peter 4:12-16)
43.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긴 자취 (벧전4:1-6) 1996.1.28 주
Traces left by Christ's suffering (1 Peter 4:1-6)
44. 좋은 날을 보려면 (벧전3:8-12) 1996.1.14 주
To see good days (1 Peter 3:8-12)
45. 좋은 날을 보기 위하여 (벧전3:13-22) 1996.1.21 주
To see good days (1 Peter 3:13-22)
46.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10-23) 1996.4.14
Also send you (John 20:10-23)
47. 주 안에서 효도하라 (출20:12) 1996.5.12.
Be filial in the Lord (Exodus 20:12)

1. 예수님의 공활을 배우라 (막 8:1-10) 1996. 12. 15

우리는 세속화된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한다. 성탄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사색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무엇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활에서 흘러 나온것이다. 우리 본문 에서도 칠병이 어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풍족히 먹인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활의 샘에서 흘러 나온것이였다(1-2). 이 공활 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1. 그의 공활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였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결과로 배부른 결과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권념 하심으로 노아홍수의 비참함이 회복되었고 하갈의 눈이 뜨여 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였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의 정복 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활로 된것임을 분명히했다. 누구에게 베푸 사랑인가? 큰 무리들을 향하여 공활을 베푸셨다. 일반적인 은혜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공활하심으로 살아간다. 더우 기 택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생명을 가진자로 살아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의 공활에서부터 흘러나는 귀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필요 한 주님의 공활을 나 자신이 받아서 온 인류에게 나누어주는 유 복자로 살아가기 바란다.

2. 예수님의 공활은 사색적이였다.

그는 기진할 것을 아셨고 멀리서 온 자들도 아셨고 사흘이나 굶은 것도

아셨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시고 작은것도 귀하게 여기셨다.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기적을 보라. 탕자의 변화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모두 구체적이고 사색적이었다. 우리는 이웃을 도울때도 그의 사정을 깊이 알고 도와주어야한다. 보리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마리는 얼마되지 않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은 엄청난 일을 이루는 도구였다. 하 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색적인 행동이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모습을 볼수 있지않은가? 이 사랑으로 목자없는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수 있게되었다. 우리는 이 런 긍휼로서 살아가야하겠다.

3. 예수님의 긍휼은 적극적이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긍휼을 가지셨다. 믿음으로 앉으라고 명하셨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이다. 그냥 큰 소리만 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적극적인 긍휼인지모른다. 이 긍휼로 기적은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한다. 행동화된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한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이런 긍휼의 흐름이 강수와 같이 되 세해야한다. 이것이 성탄절에 배워야 할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십 자가의 사건으로 절정을 이룬 그의 사색적이고 적극적인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긍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다.

1. Learn the mercy of Jesus (Mark 8:1-10) December 15, 1996

We must immediately realize the original meaning of secularized Christmas.

Christmas refers to a contemplative and active act of God's love. Above all, this flows from the mercy of Christ. In our text, the miracle of feeding more than 4,000 people with seven bowls of food was something that flowed only from the fountain of Christ's mercy (1-2). What was this mercy?

1. His mercy was the source of all blessings.

As a result of Jesus' pity, a full stomach came. Through God's encouragement, the misery of Noah's flood was restored, Hagar's eyes were opened, and she discovered an oasis in the desert. Joshua also made it clear that the conquest of Canaan was achieved only through God's love and mercy. To whom is the love given? He showed mercy toward large crowds. Through general grace, both evil and good people live with God's mercy. Even more, He loves those whom He has chosen. Because of that great love, we died and came back to life and continue to live as people with life. Therefore, when we boldly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to receive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we receive precious grace that flows from His mercy. I hope to live as a blessed person who receives the much-needed mercy of the Lord and shares it with all mankind.

2. Jesus' compassion was speculative.

He knew that people would faint, that they would come from far away, and that they would starve. And he told them to gather up the pieces that were left over, and he valued even the little things. Look at the miracle of Ghana's water being turned into wine. The prodigal son's transformation and the good Samaritan's actions were both specific and contemplative. When we help our neighbors, we must be deeply aware of their circumstances and help them.

Seven barley loaves and a couple of fish are not much.

But through the love of the Lord, this was a tool that accomplished great things. God sending his only begotten Son to rule the whole world from this earth was not an impulsive act, but a concrete and reflective act. Can't we see God's infinite mercy in this? Through this love, we who do not have a shepherd can have hope and fight against evil. We must live with this kind of mercy.

3. Jesus' mercy was active.

Jesus had the mercy of a high priest. He commanded us to sit down in faith. He said he would take responsibility. He is not someone who just shouts loudly. I don't know how active this mercy is. Because of this mercy, a miracle occurred.

We must be people of compassion. We must have mercy put into action. This flow of compassion must return like a river to the family, society, and church. This is the important meaning to learn at Christmas. I hope you have his thoughtful and active mercy that culminated in the event of the cross. Where there is mercy, there are miracles and victory.

2.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사9:1-7) 1996. 12.25

예수님을 아는 자는 4P를 알게된다. 죄사함(Pardon), 목적(Purpose), 능력(Power), 그리고 평화(Peace)를 선물로 받는다. 이 네가지가 모두 증명되었는가? 이것은 성탄절에 우리자신이 자기에게 물어보아야 할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다. 사9:6-7절에 보면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1. 영원한 위로가 있는 평강이다.

육체를 갖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다.

"놀라운 위로자, 특이한 보혜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다.

그는 성부와 혼동된 분이 아니라 삼위중의 이위이시지만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성품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이한 위로가 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을 보라. 나인성과부 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주셨다. 문둥이의 간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셨다. 38년간의 고독과 싸우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참된 위로를 주셨다.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빌어주셨다. 위로가 넘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사간의 절대 위로로 오셨기 때문이다.

2. 변함없는 공의가 있는 평강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무엇이든지 불안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몸에도 실제 삶에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공의가 세워짐

으로 주어지는 결과이다. 어떻게 이 공의가 세워졌는가? 두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가 회복되게하셨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를 얻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의가 회복되었다.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의가 회복된다. 인간관계에 의가
 죽고 불의가 없기에 평화가 없다. 사회가 정의의 강수가 흐를 때 평안이
 있다. 가정에 정직을 사랑할 때 튼튼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주시
 는 평강은 의위에 세워지는 것이어서 흔들릴 수 없는 평강이다. 풍랑속
 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바울의 고백대로 누가 나를 송
 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라는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평안이다.

3. 모든 것을 가능케하시는 평강이다.

전능하신 왕이라 했다. 그의 평강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다. 사람들은 혈육의 방법으로 싸우려한다. 싸움은 싸움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안에 있는 이 평강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위력이 있다. 그래서 유순한 혀가 뼈를 녹인다했고 심방할때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고 했다. 실제로 스테반은 원수들을 이 평강으로 이겼다. 이
 평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절정을 이루 었다. 더우기 천하무적인 사
 망앞에서 당신은 무슨 평강으로 서실 것인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이 평안이 이를 가능케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주변에 평강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환영하라.

2. Jesus came as the Prince of Peace (Isaiah 9:1-7) December 25, 1996

Those who know Jesus know the 4Ps. He receives the gifts of Pardon, Purpose, Power, and Peace. Have all four of these been proven? This is the clear voice of the Holy Spirit that we must ask ourselves at Christmas. In Isaiah 9:6-7, it is said that he came as the Prince of Peace, but what kind of peace is that peace?

1. It is peace with eternal comfort.

He who came in the flesh was called the Son of God, a wonder and counselor. It can be interpreted as “an amazing comforter, an unusual comforter.” The Lord referred to himself as the Comforter. And he was said to be the everlasting Father.

He is not confused with the Father; he is the second of the three persons, but one in unity. This means that he treats his people with the character of a father's passionate love. Therefore, there is a unique comfort in Christ that the world cannot give. Look at those who were comforted by Jesus. He saw the tears of Nain and Bu and comforted them. He heard the leper's plea and comforted him. The Lord gave true comfort to a paralyzed man who had been struggling with loneliness for 38 years. He also prayed for peace to his disciples. It was full of comfort.

This is because He came to provide absolute comfort in their life and death.

2. It is peace with unchanging justice.

Anything that is biased to one side is unsettling. Balance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body and real life. “The peace that Christ gives is the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justice. How was this justice established?

There are two things. First, righteousness was restored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We, who were enemies with God, have received righteousness through the works of Christ. This righteousness was restored when Jesus died in our place. Next, righteousness in human relationships is restored. There is no peace because righteousness is dead and there is no injustice in human relationships. There is peace when a river of justice flows through society. When you love honesty in your family, it becomes strong. Therefore, the peace He gives is a peace that cannot be shaken because it is founded on righteousness. It is the kind of peace that allows you to sleep even in the midst of storms. According to Paul's confession, who will accuse me? It is the peace that allows us to confidently confess, "Who will condemn me?"

3. It is peace that makes everything possible.

He said he was the almighty king. His peace has the power to do all things. People try to fight using blood-and-blood methods. Fighting only gives birth to fighting. But we go to this peace that is in Christ. This is powerful. So, he said that a gentle tongue melts the bones and told him to go in and pray for peace when he visited. In fact, Stephen overcame his enemies with this peace. This peace reached its peak in death on the cross. Moreover, with what peace will you stand in the face of invincible death? Can you say, "Death, where is your sting?"

This peace in Christ makes this possible. How many places are we in need of peace around us today? Christ came as this Prince of Peace. Trust Him and welcome Him.

3. 표적보다 주님을 (막8:11-22) 1996.12.29 주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 외에 더 많은 표적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셨다. 다른 성경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다. 오늘날 요나의 표적인 주님의 죽으심이 완성된 이때에는 완성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표적보다 주님을, 지혜보다 주님을, 가나안의 젖과 꿀보다는 주님과 그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어째서 표적주의가 잘못되었는가?

1. 표적이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다.

표적이란 표시를 가리킨다. Miraculous signs 역시 목표를 가리키는 수단이다. 요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기둥 현상은 단지 수단들이다. 가나안의 젖과 꿀을 맛본 다음에는 모두 중단되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자기백성의 보호와 인도를 위한 비상수단이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일 안해도 저절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표가 아니다. 그 목표는 오직 주님이 전능자시요(17-20) 그 만이 영생의 떡이심을 가리키며 그를 참으로 믿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적속에 산다"는 말을 좋아한다. 비상 수단으로만 사는 자는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비상구 탈출, 이것은 바울의 신앙과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다. 표적주의, 이적주의, 지혜주의는 모두 주님을 떠나는 운동이다.(고전2:)

2. 표적주의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했다.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의 경계이다. 이 둘은 이상하게 같이 만난다. 신비주의는 기적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같다. 그런데 탐욕의 사람들이었다. (마23:) 인본주의란 헤롯처럼 세속주의자를 가리킨다. 탐욕은 우리를 더럽힌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둘중, 어느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의 지혜의 구분을 보라. 전자는 시기와 다툼인 반면에, 후자는 성결과 화평이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들은 언 제나 공존할 수 없다. 주님이냐? 탐욕이냐?를 택해야한다. 돈이냐? 아니면 주님이냐?를 택해야한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소 욕으로 넘쳐나야한다. 이 소욕을 개발시켜야한다.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의 목표는 이것이어야한다.

3. 표적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표적주의 지혜주의를 철저히 배격했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라고 주장했다. 표적이 있어도, 표적 이 없어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향하는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된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 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진정 모든 표적, 모든 지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인것이다. 표적이냐 주님이냐,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음성을 듣는 일을 삼가야한다.

황홀경에 있던 제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을 들어라"는 주님의 명령앞에 주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는 진정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한다.

3. The Lord rather than signs (Mark 8:11-22) 1996.12.29 Lord

Do we really need more signs than the Lord? Today's text provides an accurate answer to this problem. Jesus lamented toward those who were seeking a sign. In other Bibles it is said that there is no sign to be shown to you except the sign of Jonah. Today, when the Lord's death, which is the sign of Jonah, has been completed, what can it mean but that there is no sign to be seen other than the completed sign of Jonah? Therefore, Christians must be those who seek the Lord rather than signs, the Lord more than wisdom, and the Lord and His word rather than the milk and honey of Canaan. How is targetivism wrong?

1. Because a target is not a goal but a means.

A target refers to a sign. Miraculous signs are just signs that point to a goal and are not a goal in themselves. Manna, quail, cloud pillar and fire phenomenon are just means. After tasting the milk and honey of Canaan, everything stopped. The miracle of parting the Red Sea was a means of emergency for the protection and guidance of his people.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seven loaves of fish is not aimed at teaching people that they can eat and live on their own without working. The goal is to truly believe in the Lord by pointing out that He is the Almighty (17-20) and He alone is the bread of eternal life. But these days, people like to say "living in a miracle." How anxious would a person who lives only as an emergency tool be? Emergency

exit escape,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Paul's faith and the Lord's teachings. Targetism and miracleism are both movements that leave the Lord. (1 Corinthians 2:)

2. This is because targetivism comes from human greed.

The Lord told us to be careful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the leaven of Herod. He told us to beware of the teachings of the Pharisees and the teachings of Herod. It is the border between mysticism and humanism. These two meet together in a strange way. Mysticism is like the Pharisees who love miracles. But they were greedy people. (Matthew 23:) Humanism refers to secularists like Herod. Greed destroys us. You must choose between the desires of the Holy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flesh. Look at the distinction between wisdom from above and wisdom from below. While it is jealousy and strife, it is holiness and peace. The desires of the Holy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flesh cannot always coexist. Is it the Lord? You have to choose: Greed? Is it money? Or is it the Lord? You have to choose. We must be overflowing with the desires of the Holy Spirit. We need to develop this desire. This should be the goal of words, prayer, witness, and fellowship.

3. Because the sign takes the place of the Lord.

Paul was thoroughly considerate of the target-centered wisdom doctrine. I claimed that my boasting was only in Christ and the message of his cross. Even if there was a sign or no sign, his heart toward the Lord's will still remained unchanged. Therefore, we should not love anything else more than the Lord. How should we respond to the Lord's question to Peter?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ter's confession,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more,"

is truly a confession that I love the Lord more than all signs and all wisdom. Whether it is a sign or the Lord, we must refrain from listening to voices other than the Lord. I pray that you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disciples in ecstasy and that there will be a true response to the Lord's command, "Listen only to me," saying, "Lord, I love only you."

4. 좋은 날을 보기 위하여 (벧전3:13-22) 1996.1.21 주

그리스도인은 좋은 날을 맞보기 위하여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힘써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가?

첫째, 열심으로 선행을 이름으로 좋은 날을 볼 수 있다(13-15).

선행을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벧전2:9) 선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지름길이다.(마5:16) 오늘 본문에도 선행을 힘쓰라고 했다. 어떻게 힘쓰라고 했는가? 의를 위해 고난 받는 자가 됨으로, 고난 속에서도 거룩을 지킴으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정도로 힘쓰라고 했다. 이것은 얼마나 열심있는 선행인가?

둘째,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할때 좋은 날을 볼 수 있다.(16-22)

선을 행함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선한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선한양심을 가지라고 바울은 말했다. 이 양심은 우리 마음의 감찰기관리기에 그 표준을 잃어버리면 화인 맞은 심령으로 살게 된다. 세례의 의미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히11:22) 오늘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째,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좋은 날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은 (22) 모두 열심있는 선행의 표현이다. 전도는 선행 중의 선행이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

사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선행을 보이셨다(18). 당신은 선행을 어느 정도 열심히 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장래 좋은 것의 오는 것을 미리 저축해 두는 일이다. 선행을 하되 열심히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음과 승천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힘써야한다. 그리스도인의 선행 중 선행은 전도이다. 이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좋은 날을 맞보아야 하겠다.

4. To see good days (1 Peter 3:13-22) 1996.1.21

Christians must strive to do good deeds with a good conscience in order to experience good days. How can we see good days?

First, we can see good days in the name of good deeds with zeal (13-15).

Striving for good deeds is the purpose for which God has called us. (1 Peter 2:9) Accomplishing good deeds is a shortcut to glorifying God. (Matthew 5:16)

Today's text also tells us to strive for good deeds. How did you tell them to work hard? By becoming one who suffers for righteousness and maintaining holiness even in suffering, he told me to do my best to the point where there are people who ask me the reason for my hope. How zealous is this good deed?

Second, we can see good days when we do good things according to a good conscience. (16-22)

Doing good is not one's ability. This is possible only when the Holy Spirit of God speaks in our good conscience and lives according to it. So, Paul said, have a good conscience. This conscience is the inspection mechanism of our heart. If we lose its standard, we will live with a seared spirit. The meaning of baptism is defined as a good conscience going toward God (Hebrews 11:22).

We do not know how many people today have their conscience paralyzed.

Third, we can see good days by following Christ's example and doing good deeds.

The events of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22) are all expressions of zealous good deeds. Evangelism is a good deed among good deeds. Christ once showed good deeds by dying for sins and going to the point of death (18). How eager are you to do good deeds? This is saving up for good things to come in the future. We must do good deeds with zeal, follow our conscience, imitate Christ, and strive to see the results of his death and ascension. Among the good deeds of Christians, the good deed is evangelism. We must experience good days because we have this life of evangelism.

5. 거짓교훈을 삼가하라 (벧후2:1-10) 1996.4.21

베드로는 아무리 장래가 보장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한다. 그러나 민간에 거짓선지자들이 일 어났었나니 이와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선생들이 있으리라"(1) 거짓 교훈은 어떻게 들어오며, 무슨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고자한다.

1. 거짓 교훈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거짓교훈은 슬며시 들어온다. 1절에 보면 그들은 이단이다. 끝이 다르다는 말이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했다. 천국비유 중에 가라지를 원수가 뿌릴때에 밤중에 와서 뿌려 놓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찾아와서 유혹의 미끼를 던져놓는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단사상이 내 마음에 없는가를 언제나 살피면서 바른 진리에 착념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것이다. 성 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의 밝은 빛 앞에 나가 허심탄회하게 분별할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거짓이라고 판명되었을때는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이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1. 거짓선지자들이 목표로 하는바는 무엇인가? (2-3) 베드로는 두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호색이다.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탐 심이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나타난다. 이 것은 한마디로

거짓에서 나온 것들이다. 바로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행복을 가장한 마커의 수법은 언제나 거짓이다. 오늘 날 은혜를 빙자하고, 사랑을 빙자하고, 경건을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하고 빚어지는 거짓의 교묘한 운동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거짓선지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심각한 멸망이다. "멸망케할 이단"(1)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고난)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아래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했다. 심판받을 때까지 이것저것으로 홀드해 주신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실례가 너무나 많다. 베드로는 세가지 예를 들어 심각한 멸망을 설명해 주었다. 천사의 심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마귀가 되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했다: 눈에 보이는 것따라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준비할줄을 몰랐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있는 우리 들은 이런 멸망을 가져오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거짓교훈을 따라가다가는 마침내 망한다. 오직 경건과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장래가 있는 것이다.

5. Beware of false teaching (2 Peter 2:1-10) 1996.4.21

Peter tells him to be careful not to fall into heresy, even if he is a Christian with a guaranteed future. But false prophets arose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1)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false teachings come in, what goal they are aiming for, and what results they bring.

1. How do false teachings come in?

False teachings creep in. According to verse 1, they are heretics. That means the ending is different. He said, "They quietly bring in heresy that will lead to destruction." In the parable of the kingdom of heaven, when the enemy sows weeds, he comes secretly and throws bait of temptation, just as the enemy sows the weeds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day, we will see that these heretical ideas are in my heart. If we do not have the Bible, we must have the wisdom to discern whether it is true or not, and not only be willing to stand in front of the bright light of the Bible, but also prove that it is false. When something happens, you must have the courage to cut it off without mercy, because this is the way to live and the way to save your neighbors.

2. What is the goal of false prophets? (2-3) Peter tells us two things. It's lascivious. It appears as a moral corruption. It's greed. It appears as extreme egoism. In short, these are lies. This lie comes from the devil. Marker's method of disguising happiness is always a lie. Today, how many subtle movements of lies are being made under the guise of grace, under the guise of love, under the guise of piety, under the guise of faith? How many people follow it knowing it is real? Those of you who long for grace must be able to discern what true grace is.

3. What are the results of false prophets?

It is a serious destruction. "Heresy worthy of destruction" (1) "The Lord

delivers the godly from trials (suffering), but places the unrighteous under punishment and preserves them until the day of judgment.” What it means is that God holds you back with this or that until you are judged. There are so many such examples in the Bible. Peter explained the serious destruction with three examples. Angel's Judgment: Those who tried to become like God ended up becoming devils. The people of Noah's time were judged: they judged based on what they saw and eventually lost opportunities. I didn't know how to prepare. Judgment of Sodom and Gomorrah: God's words were considered a joke. None of us here would want to bring about this kind of destruction. But be careful. If you follow false teachings, you will eventually fail. Only those who suffer with godliness and truth have a future.

6. 주의 강림을 잊지말라 (벧후3:1-7) 1996.5.19 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고 현재를 점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베드로의 권면으로 은혜받기 바란다. 어떻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했는가?

1. 항상 깨어있어라고 했다.

주의 강림의 약속으로 늘 깨우침을 받음으로 기다리라고 했다. 1-2절에 두번씩이나 보낸 서신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깨우치기 위함이다. 1진실한 마음을(양심)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고 보냈다고 했다. 생각없이 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께서 사도로 명하신것으로 깨우치라했다. 성경을 가리킨다.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 성경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그는 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0처녀의 비유처럼 "다 졸며 잘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고 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계엄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것 이다.

2. 건망증을 경계하라고 했다.

주의 강림을 잊게하는 이단이 말세에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마귀는 사람들을 달콤한 곳에 떨어지게하여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유도한다. 두 가지 운동이 극심한 때다. 극단 주의와 현실주의가 그것이다. 그런 악한 교훈, 거짓된 교훈의 동기는 무엇인가?

자기정욕주의나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일이나 창조를 인정하면서도 재림을 부러 잊으려고 한다. 우리교회는 10년동안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왔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주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건물 자랑하고, 교인수 자랑하고, 눈에 보이것 따라 사는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생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바울 처럼 경주하자.

3. 불심판을 내다보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하신다.
노아시대에 물로 심판하듯이 세상 끝에는 불로 심판한다 고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하겠다.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되라. 상한 심령과 성령충만을 갈구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자

6. Do not forget the coming of the Lord (2 Peter 3:1-7) 1996.5.19 Lord

As we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we hope to reflect on the steps we have taken, examine the present, and receive grace from Peter's advice as we move toward a new future. How are we told to wait for the coming of the Lord?

1. I told you to always be awake.

He told us to wait by always being enlightened by the promise of the Lord's coming. This is the purpose of the letters sent twice in verses 1-2. It is to awaken. 1 It is said that he was sent to awaken the sincere mind (conscience) and make people think. Don't be a foolish rich person who lives thoughtlessly. and 2) to be enlightened by the prophetic words of the holy prophets and what

the Lord commanded through his apostles. Refers to the Bible.

(Lessons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If a person does not receive enlightenment from the Bible, he or she is in a dull state. Like the parable of the 10 virgins, it was said that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everyone has no choice but to doze off and sleep.” To overcome the spiritual laziness that comes to those who wait a long time, receive enlightenment through the Holy Spirit and the Word. We all need to be awake.

2. I was told to beware of forgetfulness.

It is said that many heresies that cause people to forget the coming of the Lord will arise in the last days.

The devil leads people to forget this great fact by putting them in a sweet place. It is a time when two movements are intense. These are extremism and realism. What is the motive behind such evil and false teachings? They try to forget the Second Coming even though they acknowledge creation, or try to force themselves to read the Bible. Our church

I have come this far under the guidance of the Lord for 10 years. We hope to become a church that strives to restore the image of God and stands before the Lord. I still hope to grow into a church that reveals the glory of God in all areas of life, rather than boasting about the building, boasting about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and living according to what you see. Let us race like Paul for this task.

4. Looking ahead to the judgment of fire, God tells us to achieve salvation through fear. It is said that just as there was judgment with water in Noah's time, at the end of the world there will be judgment with fire. We must keep the Lord's words in our hearts and live according to them. Be the one who lives before God like the judgment of the sheep and the

goats. Let us prepare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by becoming a broken spirit and a spirit that longs for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7. 올바르게 성장하여라 (벧후3:14-18) 1996.6.2

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 신다.
(빌1:6) 그러나 우리편에서 어떻게 할것인지를 알고 그것 을 힘써
나가야한다. 주님의 오실날이 점점 가까운데 우리는 어 떻게 이 날을
준비해야하는가? 이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 게 준비해야하는가?

1. 몰려오는 미혹을 삼가해야한다.

베드로는 구원을 가리켜 성장하여가는 것이라했다. 14절 "점 도 흠도없이
주 앞에 평강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고,
15절에는 우리 주의 오래참으심이 구원이 될줄 알라고 했다.
바울 역시 살전5장에서 영혼몸이 온전하여지는것이 구원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미혹하는 교훈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그런 미 혹 가운데
가장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관이다. 무슨 미혹 인가? 성경에 대한
세가지 사실이 분명치 못하다. - 성경이 하나 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다. 다른 성경이 있다고 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근거를 두라고
한다. -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 는 것이 있다고 했다.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을 성경의 사상으로 해석해야한다. - 성경을 오해하는 운동이 있다고
했다. 무법한자 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다.

2. 은혜안에서 성장해야한다.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안에서 성장하라고 했다. 은혜 와
평강이란 예수 안에만 있는것이다. 그는 구원주요 주권주가되 시기

때문이다. 구원이란 (1) 죄사함이다. (2) 영생소유다. (3) 평 강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야한다.

게으름과 싸워나가야한다. 게으른 자는 사자가 오지않는 데도 사자가 온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며, 문 짝의 돌쩌귀가 도는 것처럼 발전이 없다. 날마다 나가라. 거기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3.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요17:3)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취급한 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알아야한다. 경험적으로 알아야한다. 이 세 상에서 가장 바쁜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성경연구하는 일 에 성실성을 보이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행복자가 바로 참 그리 스도인이다. 바로 시작한 우리들은 바로 성장해야한다. 어떻게?

먹어야한다.(성경읽기) 호흡해야한다.(기도) 운동해야한다.(교제와 전도) 올바르게 성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땅의 세계 모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7. Grow Up Properly (2 Peter 3:14-18) 1996.6.2

The salvation of the Lord Christian is initiated by God and completed by God. (Philippians 1:6) However, we must know what to do on our side and work hard to do it. As the day of the Lord's coming gets closer, how should we prepare for this day? How should we prepare toward this completion?

1. You must refrain from the temptation that comes your way.

Peter said that salvation is about growing up. He said in verse 14, “Do your best to be found before the Lord in peace, without spot or blemish.”

Verse 15 says, “Know that our Lord’s patience will save you.”

Paul also said in 1 Thessalonians 5 that salvation is the perfection of the soul and body. That is why so many deceptive teachings appear. What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among such delusions? It is a Bible view. What kind of delusion is this? Three facts about the Bible are unclear. - I am not confident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They said there was another Bible. It tells us to base our minds on something else. - He said that there is a force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e must interpret the Bible as the Bible and the Bible as the ideas of the Bible. - You said there is a movement to misunderstand the Bible. It was said that a movement of outlaws was taking place.

2. We must grow in grace.

Verse 18 tells us to grow in the grace of the Savior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are found only in Jesus. He is the savior and sovereign, but it is because of jealousy. Salvation is (1) forgiveness of sins. (2) It is eternal life. (3) It is a river of peace. Therefore, we must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every day to receive grace. We must fight laziness. For lazy people, a lion comes even when the lion does not come. Even if he puts his hand in the bowl, it is painful to lift it, and there is no progress, like the hinge of a door turning. Go out every day. The Lord answers there.

3. We must grow in the knowledge of Christ.

The knowledge of Christ is eternal life. (John 17:3) Paul said that because the knowledge of Christ is the noblest, we treat other things like excrement. You need to know historically. You need to know empirically. The busiest thing in this world is to know Christ. Who shows sincerity in studying the Bible? Such a happy person is a true Christian. Those of us who started right away must grow right away. how?

You must eat (read the Bible), you must breathe (prayer), and you must exercise (fellowship and evangelism). I pray that you grow up properly and become participants in both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that the Lord has prepared.

8. 광야의 외치는 소리 (막1:1-8) 1996.6.9 주

오늘부터 "종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말 하기 전에 전주곡과 같이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 세례요한, 그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모 본을 보였다. 어떤 점이 복음전파자의 모본이 되는가?

1. 그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은 무슨 메시지를 가졌는가? “죄사함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4)라고 했다. 회개를 왜 촉구하는가? 회개하면 천국을 맛보기 때문이다. 세례는 회개의 중표이다. 그리고 그는 오시는 메시아가 "능력 많은 이"(7), "성령으로 세례주시는 이"라고 했다(□. 다시말하면 그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그에게 돌아갈 길을 분명히 가르쳤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증거해야될 마지막 주자들이다. 중생의 주관자요, 능력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분명히 알리고 전파하는 자가 되자.

2.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소리란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목적을 달성하고 곧 없어지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겸손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것을 행하였다. 당신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라고 부름받은 외치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오늘 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중의 하나는 자신의 위치가
광야의 외치는 소리인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겸손과
헌신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수 밖에 없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기 때문이다.

3. 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경건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6절에 그가 입고, 먹고, 기거한 곳을 보라. 그는 경건생활 위주로
살았다는 말이다. 그는 경건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외부), 믿음과 사랑(내부) 그리고
온유와 인내(이웃에 대하여)로 갖추어야한다고 말한바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가? 요한을 통해 경건생활을
배우라. 이 길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중요한 요건이다. 오늘날은
이런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 한 나팔, 분명한 능력, 그리고 분명한
도구를 필요로하는 기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8.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Mark 1:1-8) 1996.6.9

From today, I think about the “Gospel of the Servant.” The Son of God came
as a servant and saved his people. Before speaking the content of this gospel,
as a prelude, God sent John the Baptist to prepare the way. John the Baptist, he
set an example in spreading the gospel. What sets an example for an
evangelizer?

1. Because he delivered a clear message.

What message did John the Baptist have? He said, “It is a baptism of repentance that leads to the forgiveness of sins” (4). Why is repentance urged? Because if you repent, you will taste heaven. Baptism is a sign of repentance. And he said that the coming Messiah will be “the Mighty One” (7)), “He who baptizes with the Holy Spirit” (□). In other words, he clearly testified to the Son of God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and clearly taught him the way to return.

We are the last runners who must bear witness to the Lord who has already come. Let us become people who clearly announce and spread the word about the Lord, who is the ruler of rebirth and the ruler of power.

2. Because he had a sense of mission given by God.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the prophet Isaiah, he is a man prepared by God.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the one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Just as a sound appears for a moment and disappears as soon as it achieves its purpose, John the Baptist did what the Lord told him to do with humility and devotion. You are also a person prepared by God. We must understand that it is a cry calling us to greet the Lord of the Second Coming. One of the problems of Christians today is that they live without realizing that their position is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I have no choice but to carry out this mission with a joyful heart of humility and devotion because I know that it is a mission given by God.

3. Because he had a life of godliness that God could use.

Look at verse 6 where he dressed, ate, and lived. This means that he lived mainly a pious life. Armed with piety, he preached his gospel.

Paul said that as a man of God, one must be equipped with righteousness and godliness (externally), faith and love (internally), and gentleness and patience

(toward one's neighbors). Are you ready to be used by God? Learn how to live a godly life through John. This path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us to learn in this era. These days, people like this are in demand. This means that it has become an expectation that requires a clear trumpet, clear abilities, and clear tools.

9.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막1:9-13) 1996.6.19 주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길을 찾는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을 안다해도 갈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를 만날 수 있다. 이는 그앞에 가도록 죄문 제를 그가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그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본문 9-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신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 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들 가장 가까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의 주님을 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령의 증거, 성부의 증거,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모 습으로 오셨다. 그는 세리의 친구요, 창기의 친구였다. 누구든지 그 분에게 겸손히 나가기만 하면 그는 용납해주신다.

2.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 성령이 이끌림으로 나아가셨다. 수동적이었다. "몰아내신지라". 40일간 계셨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당한 것 처럼 그는 이 시험을 친히 담당하셨다. 오랫동안 당하는 시험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 분에게 나아 가라. 아담을 시험한 사단은 둘째아담을 시험했다. 아담은 실패했 으나 둘째 아담은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시험 당한자들을 친히 아시고 그들을 용납해주시고 이기도록 도 와주신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세가지 사실을 알아야한다. 1) 사탄의 시험은 항상 있는것이다. 2)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길수 있다는 사실이다.

3) 사탄의 시험을 이길때 더 큰 축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실패했을때 주께 나아가라.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이기셨다. 세 레옌한의 증거를 받아 오신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가장 낮게오신 그분께 지금 나아가라.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것이다. 시험을 이길때 위대한 축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The Son of God who came in the form of a sinner (Mark 1:9-13) 1996.6.19 Week

Each person searches for a way to meet God. However, we do not know the path, and even if we knew the path, we do not have the ability to go there. We can meet him only through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This is because he personally solved the problem of sin that came before him. So, as a Christian, you can confidently approach God. Why?

1. Because he came in the form of a sinner.

In verses 9-11 of the text, Jesus comes to the Jordan River and is baptized.

The sky splits open and the Holy Spirit comes like a dove. A voice was heard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We see the Lord with humble hands coming closest to us and being baptized, even though he is the Son of God. He was the Son of God. Evidence of the Holy Spirit, He

came in the form of a sinner to save us, receiving the testimony of the Father and the friend of the prostitute. He accepts anyone who comes to Him humbly.

2. Because he was tempted like us.

He was tempted in the wilderness. He went forward, led by the Holy Spirit.

It was passive. “He drove them out.” He was there for 40 days. Just as Israel was tested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He personally took this test. The

Lord knows very well the trials we f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Come to

Him. Satan, who tested Adam, tested the second Adam. Adam failed, but the

second Adam turned Adam's failure into success. Therefore, God Himself

knows those who are tempted, tolerates them, and helps them overcome. When

we are tested, we must know three things. 1) Satan's temptation is real. 2) You

can overcome all of Satan's tests.

3) When you overcome Satan's temptation, you can enjoy greater blessings.

Angels attended. When you fail, come to the Lord. He is the one who came in

the form of a sinner and was tempted himself. But he won. The Lord who

came after receiving the testimony of John the Baptist came in the form of a

sinner. He came to the lowest, come to Him now. Those who come to Him in

faith will experience great things. Because when he overcomes the test, he can

enjoy great blessings.

10. 하나님의 복음 (막1:14-15) 1996.6.23 주

복음이란 좋은 뉴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뉴스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것을 창세전 에 감추인 비밀이라 했고, 요한은 빛과 생명으로 비유했다. 최 초의 신약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고 복음전파는 왜 그렇게 긴 박한 사건이며 이런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것인가?

1. 복음전파의 시기

"때가 찼다"란 무슨 때인가? 그때란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히1:1-2) 고후6:2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 여인의 후손이 이제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때다.(창3:15) 복의 근원, 그 선지자, 실로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 대는 역사상에 마지막 종말시대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한다. 다 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기회인식이 중요하다. 노아홍수때 기회를 놓침으로 그들은 모두 멸했다. 롯의 아내는 기회를 잃어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 놀라 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말고 부지런히 이 복음안에 거하자.

2. 복음전파의 긴박성

뱀의 머리를 상하게하는 일은 승리를 약속한 말이다. 하나님나라가 가까왔다는 주님의 선언은 이 엄청난 심판과 구원의 승리 를 가리킨다. 하나님나라란 그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의 왕권을 가리킨다. 그 나라는

성령안에서 회락과 화평으로 나타난다.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있다.
가까왔다는 말은 재림을 말함이 아니 고 초림의 역사이다. 지금 그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마귀 가 도망가고 불치병자가 치료된다. 이런
시대를 선언한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가?

2. 복음전파의 응답방법

회개와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이다.
회개하고 믿은자의 특징은 겸손의 마음이다. 종의 복음이다. 겸손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지
않겠다고 경계하셨다. 이유인즉 목이 곧 은 백성인 그들은 즉시 돌격할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셨다. 강팍 한 마음에는 복음의 효력이 없다.
단장품을 제하라고 했다. 하나 님의 복음에 응답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긴박한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
자신이 회개 와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웃에게 이 복음을 알리자.

10. The Gospel of God (Mark 1:14-15) 1996.6.23 week

Gospel means good news. The gospel of God refers to the greatest news given
to us by God. Paul called it a secret hidd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John likened it to light and life. When did the first New Testament gospel
begin, why is spreading the gospel such an urgent event, and how will we
respond to this gospel?

1. The period of spreading the gospel

What does “the fullness of time” mean? That time refers to the time of the end.

(Hebrews 1:1-2) 2 Corinthians 6:2 says, “Now is the accepted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Now is the time when the woman's descendant appears and bruises the serpent's head. (Genesis 3:15) The source of blessings, the prophet, and the Christ prophesied in Shiloh is Jesus. So, we must not forget that the era we live in is the last apocalyptic era in history. This is the only era of salvation where we will never be given another chance. Therefore, opportunity recognition is important. They all perished because they missed the opportunity during Noah's flood. Lot's wife lost her chance and became a pillar of salt. Let us not miss this amazing opportunity of blessing and diligently abide in this gospel.

2. The urgency of spreading the gospel

Bruising the snake's head is a promise of victory. The Lord's declaration tha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fers to this tremendous victory of judgment and salvation. The kingdom of God refers to his reign. It refers to his royal authority. The kingdom appears as harmony and peace in the Holy Spirit. He is ruling the country. The word “at hand” does not refer to the second coming, but refers to the history of the first coming. Now the reign of the country has begun. The devil flees and the terminally ill are cured. How amazing is this era that has been declared?

2. Response method for spreading the gospel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It is trusting in Christ. The characteristic of a humble believer is a heart of humility. It is the gospel of the servant. Without humility, you cannot go down that path. He warned that he would not be with the Israelites who made the golden calf. The reason was because he thought they, a stiff-necked people, would attack immediately. The gospel has no effect in a single heart. I was told to remove

the decorations. Live as one who responds to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of God has already begun. We live in tense times. Let us ourselves respond with joy and faith and spread this gospel to our neighbors.

11. 부르심에 응답하라 (막1:16-20) 1996.6.30 주

하나님은 이 천국을 맛보고 이 천국의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한 유일한 부류를 세우시기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바로 응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1. 당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줄 알때 바로 응답할 수 있다.

누가 부르셨는가? 주님이 부르셨다. 그는 하나님나라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제자들도 그의 왕권을 믿지 않다가

성령의 알게하심으로 그 왕권을 인정했다. 나다나 엘"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 요 살아계신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이다"고 했다.

이것은 단7:13절에 인자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와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드린다고 한 예언의 성취대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었다.

2. 당신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때 바로 응답할 수 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구원받을 전제하고 더 넘어선

사명에 관한 약속이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모 세를 보라, 그는 80세를 개인 구원문제 하나만 가지고 살았다.

그러다가 남은 40세는 사명을 위해 살았다. 사무엘의 경우, 그는 어릴때 이것을 동시에 받았다. 부모가 바쳤어도 그 자신의 개인적 체험이 없으면 안된다. 오늘날 부르심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충실히 살아가는 자가 복된다. 사명을 위해 살때 만족이 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는 자란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다.(마28:19-20)

3. 당신은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바로 응답할 수 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사람낚는 어부가 되게하려고 부르신다.

정말 여러분은 응답했는가? 최초의 네 제자의 응답에는 세가지 요소가 있었다. (1) 즉각 응답했다. 일거리 없는 자가 아니었다.

바쁜 자들이었다. 미루지 않았다. 즉각 응답했다. (2) 버리는 용단이 있었다. 자기 직장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나선자들이 많다.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 (3) 따르는 행동이 있었다 다. 주님을 따랐다. 주님은 지금 이런 응답을 당신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나라의 왕이 지금 부르신다. 이 일에 동참하라고 당신을 부르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 다 드립니다. 이사야 응답이 있기를 축원한다.

11. Answer the call (Mark 1:16-20) 1996.6.30 week

God wanted to raise up a unique class of people who could taste this heaven and share its blessings. That is the church.

Christians think about how they can immediately respond to Christ's call.

1. When you know who is calling you, you can respond right away.

Who called? The Lord called. He i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He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he disciples also did not believe in his kingship, but recognized it through the knowledge of the Holy Spirit.

Nathanael said, "You are the King of Israel," Peter sai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Thomas said, "My Lord and my God." This is said in Dan 7:13, "He who is like a son of man."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that he would pick a cloud and receive authority over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give it to God was fulfilled when he came to Christ.

2. When you know the purpose of the call, you can respond right away.

Why did the Lord call his disciples? Verse 17 says that he will make them fishers of men. He is a fisher of men. It is a promise about a mission that goes beyond the premise of salvation. This is complete salvation. Look at Moses.

He lived for 80 years with only one problem of personal salvation.

Then, for the remaining 40 years of his life, he lived for his mission. In the case of Samuel, he received this at the same time as a child. Even if his parents gave it, it cannot be done without his own personal experience. How many actions today are far from the purpose of our calling? Blessed are those who faithfully live in the calling of the Lord. There is satisfaction when you live for

your mission. He is a person who distributes blessings by making people become fishers of fish. He is a person who changes others. Now the Lord calls us. He called others to be fishermen (Matthew 28:19-20).

3. You can respond right away through the decision of your heart.

The Lord, the King of kings, calls us to become fishers of men.

Did you really respond? There were three elements to the response of the first four disciples. (1) Responded immediately. He was not without work.

They were busy people. I didn't put it off. responded immediately. (2) There was a courageous decision to throw away. There are many who have abandoned their jobs and devoted themselves entirely to the work of the Lord.

I changed my work priorities. (3) There were actions that followed. I followed the Lord. The Lord requires this response from you now. The King of God's

Kingdom is calling now. He calls you to join in this work. I am here. please

send me I give my whole body and mind to the Lord. I pray for Isaiah's answer.

12. 권세있는 새 교훈 (막1:21-34) 1996.7.7 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권세있는 새교훈을 가지고 능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1. 복음의 위력을 믿는자가 그 능력 안에서 산다.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훈"에서 나온다. 막 16:에 복음을 믿는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다. “독의 해 를 받지않고, 손을 얹을때 병든자가 나으리라고 했다.” 복 음의 놀라운 위력을 보인다.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의 말씀이 모든 일의 능력임을 믿지않았기 때문이다. 주님 이 마귀를 이긴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이 권위의 원천이다. 오늘날 이것을 믿지않는것이 문제이다. 성경의 권 위를 믿지않는 이상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한, 진정한 은 혜를 알지못한다.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성경 을 알려고하는 정상적인 양의 태도를 가지라. “내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음은 그 말 씀의 위력을 맛보기 때문이다.

2. 말씀을 잘 받음으로 그 능력안에서 산다.

23-28절에 귀신들린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주의 말씀으 로 고치셨다. 이 말씀을 잘 받을때 일이 된다. 사람이 떡 으로만 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귀신들린자가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자체가 받 도록 해준다. 주님의 입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도 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가 르쳐야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기위하여 준비하고 정성 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날 귀신에 이끌려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귀신이 들리면

(1) 거짓말을 하고 (2) 악해지고 (3) 자학행위를 하고 (4) 살 인과 간음을 하고 (5) 참소하고 (6) 불평하고 (7) 그리고 더 러워진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다." 이 귀신이 도망간것은 주의 말씀때문이다. 이 능력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잘 받을때 능력있는 삶을 살수있다.

(2)

3. 주님의 사랑에 접할때 그 능력안에서 산다.

복음의 위력을 알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속에 숨어있는 주의 사랑을 접할때 그 능력을 맛볼수 있다. 29-31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접촉하시고 치료하셨다.

32-34절에는 많은 병자, 많은 귀신들린 자를 고치셨다. 치료 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에서 나온다. 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십자가의 보혈은 정상인이 되게한다. 누워있는자가 수종드는 자로 바꾸어졌다.

12. Powerful New Teaching (Mark 1:21-34) 1996.7.7 Week

How can Christians lead powerful lives with powerful new teachings?

1. Those who believe in the power of the gospel live within its power.

Where does authority come from? It comes from "Lesson". In Mark 16: it is said that these signs follow those who believe in the gospel. "No poison will harm them, and when hands are laid on them, the sick will be healed." It

shows the amazing power of the gospel. The reason Adam failed was because he did not believe that the word of God had the power to do all things. The Lord's victory over the devil is in the written word. This is the source of authority. The problem today is that you do not believe this. As long as you have a strange view of the Bible and do not believe in the authority of the Bible, you do not know true grace. You What do you seek from the church? Have the attitude of a normal sheep who seeks to know the Bible. "My sheep listen to my voice," and those who meditate day and night are blessed because they experience the power of the word.

2. By receiving the Word well, we live in its power.

How did He heal the demon-possessed man in verses 23-28? He healed me with the word of the Lord. When you receive these words well, things happen. It is said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the words that come out of his mouth.

I don't know if the demon-possessed person received the word, but the word itself allows it to be received. The words of the Lord's mouth are bound to bring about results. Therefore, we must teach diligently, whether the season is right or not. However, if you prepare and devote yourself to receiving this word well, how blessed can you be? How many people today are led by ghosts? If you hear a ghost

(1) lie, (2) become evil, (3) commit self-harm, (4) commit murder and adultery, (5) accuse, (6) complain, (7) and become dirty. "They said it was an unclean ghost." The reason this ghost ran away was because of the words of the Lord. When you receive this powerful word well like Mary did, you can live a powerful life.

3. When we encounter the love of the Lord, we live in its power.

When you know the power of the gospel, accept the gospel well, and then encounter the love of the Lord hidden in the gospel, you can taste its power. In verses 29-31, Jesus touched Peter's mother-in-law and healed her. In verses 32-34, He healed many sick people and many demon-possessed people. Healing comes from God's loving touch. True love makes me live. The blood of the cross makes us normal people. The person lying down was transformed into the person serving.

13. 기도로 왕의 은혜를 받는다 (막1:35-45) 1996.7.14 주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왕께 간구함으로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을 가리킨다. 공짜로 받는 그 무엇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은혜받는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1.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백성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다.

38절에 주님이 오신목적이 전도하러오셨다고 하셨다. 요4:에는 "너희가 알지못하는 양식"이 주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전도를 매일 먹는 양식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전도란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바울의 전도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염병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절대은혜를 상대은혜로 생각하고 있다. 주님의 역사는 모든 병든자, 모든 귀신을 다 치료하시는 절대능력이다. 그에게는 예외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런 절대은혜를 받지못하는가? 불신앙때문이다. 그분이 그런 은혜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지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은혜는 그분에 대하여 절대빈곤을 느낄때 찾아온다.

2.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은혜주시러 오신 천국의 왕은 자기백성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은혜의 가치를 크게 느끼고 효율적인것은 기도함으로 받는 은혜이다. 우리 본문에는 두가지 그림이 나온다.

1) 예수님 자신이 친히 골방기도를 하셨다.(35) 새벽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하셨다.

2) 한 문둥이가 고침받는 것이 그의 간구로 은혜를 받았다. 그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그의 치료동기는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되었다. 사모심이 있어 나아갔다. 겸손히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왕의 의사를 존중히 여겼다. 왕의 능력을 믿었다. 아무리 절망적 이라도 문제는 간구하지않는데 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라. 그 왕은 은혜를 구할때 반드시 주신다.

3. 왕의 절대 뜻에 자기의 뜻을 맡길때 은혜를 받는다.

"주의 뜻이라면 (원이라면) 나를 깨끗케 하옵소서" 그의 왕권을 인정함이다. 지금의 상황속에서도 여전히 왕은 주님이시다는 고 백이다. 그의 뜻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고치 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것이 더 좋으시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왜 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다. 겻세마네 동산의 결단은 왜 중 요한가? 그 순간에 주님이 성부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었다. 우리 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단마음이 있을때 거기에 창조가 일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난다. 왕의 절대은혜를 주의 뜻을 따른 간구로 받아 누리시기 바란다.

13. Receive the king's grace through prayer (Mark 1:35-45) 1996.7.14 Week

Christians can receive His grace by asking the King of Power. Grace refers to a free gift. It's something you get for free. Today we are going to think about how we receive grace.

1. The purpose of Jesus' coming was to give grace to his people.

In verse 38, the Lord said that the purpose of his coming was to evangelize.

John 4:

It is said that “food that you do not know” will fulfill the will of the Lord. The person who lives by thinking of evangelism as his daily food is Christ. What is evangelism? It conveys special grace.

Paul's evangelism was said to be a pestilence that was disturbing the world. Many people's misunderstanding is that absolute grace is relative grace. The work of the Lord is absolute power that heals all the sick and all demons. He had no exceptions. But why do I not receive this absolute grace? It's because of disbelief. This is because they do not believe that He is the only one who gives such grace. His grace comes when we feel absolute poverty toward Him.

2. You can receive His grace in the secret closet of prayer.

The King of Heaven, who came to give us grace, wants his people to pray. The greatest value and effectiveness of grace is grace received through prayer.

There are two pictures in our text.

1) Jesus himself prayed in his closet. (35) He prayed in a quiet place in the early morning hours.

2) A leper was healed through his prayers. His condition was hopeless. His motivation for healing was to pray to Him. He went forward out of love. He humbly bowed down and prayed. He respected the king's wishes. He believed in the power of the king. No matter how desperate it is, the problem lies in not praying. Go out with repentance and faith. When you ask for grace, the king will definitely give it to you.

3. He receives grace when he submits his will to the absolute will of the king. “If it is your will (if it is your will), purify me,” it is an acknowledgment of his royal authority. It is a confession that even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King is still the Lord. It is a heart that trusts that only His will is best. If God doesn't

want you to change things and it's better for you to stay the same, then you like it. How precious is this heart? because? Because God uses it. Why is the decision in the Garden of Gethsemane important? At that moment, it was the moment when the Lord received the grace of the Father. When we have a single intention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creation occurs and miracles occur. Healing happens. I hope you receive and enjoy the King's absolute grace through prayer according to the Lord's will.

14.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막2:1-12) 1996.7.21 주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의 문제는 죄이며 죄 사하는 권세가 계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이 시간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분이 누구이며 이 죄를 어떻게 적용할것인지를 생각한다.

1. 죄란 무엇인가?

죄는 모든 문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보인다. 죄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거룩한것 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살인, 간음, 헛맹세 경우 마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몸의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적의 문제해결이다. 중풍병자의 보다 죄가 더 급한 문제였다. 주님은 병 고치러 오신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러 오셨다. 우리가 소극적인 죄를 이겼다하여 안심하지 말라.

적극적인 자리에 나가지 못한것이 죄악이다.

2.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분은 예수님이시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심은 그 자신의 죄 사하는 권세자이심을 증거함이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선포하셨다.

어떻게 사하셨는가?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하셨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용서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회피함으로서, 다른 것에 도피함으로서, 선행과 공적으로서, 그리고 수양함으로서 해결 하려고 한다. 우리는 십자가 우편, 강도의 심정을 가져야만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자신의 죄책을 느꼈다. 마땅히

죽어도 좋다는 책임의식과 아울러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았다. 갈보리 로

나아가라. 당신의 저지른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8복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자체가 축복이 며 이 자체가 행복이며 이
자체가 밝음이다. 예수님은 능히 나 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

3.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죄사함받는다.

중풍병자와 그의 세 친구를 보라. 믿음의 대상이신 주께 나아 갔다.
회생을 각오했다.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자 지붕을 뜯었 다. 주님에게 이
문제를 다 맡겨 버리는 마음이 복되다. 주님 은 즉시 그의 죄를 사하셨고
병을 치료하셨다. 주님에 대한 유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때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위대한 능 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죄 사하는 분이시다. 그 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죄를 자백하라. 그는 용서하신다. 그럴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14. The one who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Mark 2:1-12) 1996.7.21
Week

Christians can solve all problems by receiving forgiveness of sins.

The problem today is sin, and the only one who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is Jesus. At this time, we think about what sin is, who has the power to forgive
sin, and how to apply this sin.

1. What is sin?

Sin shows us that it is the root of all problems. Sin is failing to meet God's
standards. He tells you to be holy just as God is holy. Therefore, in cases of

murder, adultery, and empty oaths, the state of mind was used as the standard. Therefore, solving the problem of the enemy is more urgent than the problem of the body. Sin was a more urgent problem than that of the paralytic. The Lord did not come to heal the sick; He came to forgive sins. Do not be relieved that we have overcome negative sin. It is a sin not to be active.

2. The one who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is Jesus.

The fact that he declares, “Son,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proves that he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his own sins. The Lord intentionally declared this. How did he forgive? He was forgiven by the atonement of His cross. Just trust him and he is forgiven. People today are looking elsewhere for solutions to their sin problems. We try to solve it by avoiding it, escaping to something else, doing good deeds, achieving merit, and cultivating ourselves. We must have the right hand of the cross and the heart of a thief to solve the problem of sin. He felt his guil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he deserved to die, he only looked to the Lord. Go to Calvary. You will know that all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8 You must have a heart of blessing. This itself is a blessing, this itself is happiness, this itself is brightness. Jesus was able to take care of all my sins.

3. Receive forgiveness of sins by believing only in Jesus.

Look at the paralyzed man and his three friends. I went to the Lord, the object of my faith. He was determined to revive. When he had trouble getting around, he tore off his roof. I am blessed to have a heart that entrusts this problem to the Lord. The Lord immediately forgave his sins and cured his illness. When we live with this joyful faith in the Lord, we will experience the great power of the kingdom of God. The King of God's kingdom who came among us is the one who forgives sin. By believing in Him, we receive forgiveness of sins.

Confess your sins. He forgives. Then we will find that all problems are solved.
I hope this blessing will be with you.

15. 성경적 메시아관 (막2:13-18) 1996.7.28 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고 죄인 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메시아관을 생각함으로 그 중요성을 생각하려 한다.

1.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

그들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으로 보았다. 12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이와같은 메시아관을 가졌다(행1:6-7). 유대인

•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오늘날에도 이런 메시아관을 가진자가 많다. 육신위주, 기적위주, 세속위주는 모두 이런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식주의를 배격하신다. 외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마23:) 외식이란 교묘한 죄악이다. 슬며서 들어온 죄악이다.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구제할때, 기도할때, 그리고 금식할때도 이런 외식은 작용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현실지향적인 시야관을 추구한 그들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2. 성경적 메시아관

17절에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죄인의 깨달음이 없으면 부르심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병든자의 치료자이시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 이것은

죄를 좋아하시거나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은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식주의를 배격 하신다. 주님 시대에 성경적 메시아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진실주의는 밀천이 드는 것이 아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된다. 그럴때 효력이 일어났다. 우리는 마태복음 8: 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 직원의 딸이 죽었을때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다. 무슨 동기냐? 그 직원이 죄인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갔다. 나아가 절하며 간구했다. 혈루증 여인의 자세를 보아라. 얼마나 겸손한가? 여기에 믿음이 싹튼다. 두 소경의 고침받는 사건도 그러하였다. 주님은 모두 할수 있습니다 는 신앙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죄인인줄 아는 자로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갔다. 이것이 주님을 바로 아는 성경적 메시아관을 가졌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있을때 주님을 만나는 살깊은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15. Biblical Messianic View (Mark 2:13-18) 1996.7.28 Week

To the Pharisees who criticized Jesus for eating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Jesus said, “Those who are healthy do not need a doctor, but those who are sick,” and that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We will try to consider its importance here by considering the biblical view of the Messiah.

1. The Pharisees’ view of the Messiah

They saw him as “the one who came to call the righteous.” The 12 disciples

also had a similar view of the Messiah as they followed the Lord (Acts 1:6-7).
Jew

- seeks a sign, but the Greek seeks wisdom. Even today,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this kind of Messianic view. Body-centered, miracle-centered, and worldly-centered all fall into this category. Therefore, God rejects hypocrisy. Hypocrisy does not meet God. The Pharisees claimed to be God's servants, but they could not meet God. (Matthew 23:) Hypocrisy is a subtle sin. It is a sin that sneaks in. It acts like tares sown in a field. This kind of hypocrisy also comes into play when giving alms, praying, and fasting. Instead of waiting for the Messiah mentioned in the Bible, they pursued a reality-oriented perspective and were unable to meet the Lord even though He came closest.

2. Biblical view of the Messiah

In verse 17, the Lord said that he came to call sinners. Therefore, without a true sinner's enlightenment, he cannot experience the effectiveness of his calling. Jesus is the friend of sinners and the healer of the sick. He ate with sinners. This does not mean that He loves or condones sin, but that He is willing to give grace to those who realize their sins and repent. Therefore, God rejects hypocrisy. It was God's grace to know the biblical view of the Messiah during the Lord's time. Truthism is not something that costs money. All I have to do is go out as I am. That's when it took effect. We read Matthew 8: You can see a lot in . When an employee's daughter died, the Lord saved her life. What is your motive? The employee approached humbly with the heart of a sinner. He went forward and bowed and prayed. Look at the posture of the woman with the bleeding. How humble is she? This is where faith sprouts. The same thing happened with the healing of the two blind men. The belief was that the Lord can do everything. What these two have in common is that he

came to the Lord with a humble heart, knowing that he was a sinner. This means having a biblical view of the Messiah and knowing the Lord correctly. How strong is your realization that you are a sinner? When this happens, a deep experience of meeting the Lord occurs.

16. 안식일의 주인 (막2:23-3:6) 1996.8.18 주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잘 지키므로서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이 복된 날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 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생각해 보자.

1.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견해

오늘날 시대는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견해로 깊이 오염되었다. 마치 성전의 완성자요 지혜의 근원인 그 분이 오셨는데도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심각한 어두움에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의 견해는 무엇이 잘못된가? 1) 일하지 말라는 말에 치우쳐 있었다. 밀밭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비볐다는 것이 일했 다는 것이다. 편협된 진리적용을 본다.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 었던 것이 용납되었다. 그는 복음의 빛아래 살았다.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알지 못했다. 2) 적극적인 일에 무지했다. 안식에 손 마른 사 람을 고치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셨다. 안식일이란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을 영접하지 않 으면 진정한 안식을 알못한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 야 만 안식일의 의미를 알 수 있다.

2.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안식일 에 해야 될 일을 발견한다. 1)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일들은 오락을 삼갈것,

사사로이 행하지 말것, 그리고 말과 뜻을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2)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은 즐거운 날로 존귀히 여겨야 한다. 예배, 구제, 전도에 힘써야한다. 특히 예배에 성 공해야 한다. 예배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예배를 위해 우리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해야한다. 비정상적인 신앙은 예배를 무시 한데서 찾아온다.

5.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대하는 축복 창세기에 여호와와 약속을 보라. 복주시는 날이라 했다. 만나가 안 내리는 날에는 만나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사58:14절 에는 3가지를 약속한다. 1) 여호와께 즐거움을 얻는다. 2) 여호와께 서 땅의 높은 곳에 앉히신다. 3) 야곱의 축복을 얻게하신다. 안식일 에 안식을 체험하는 것이 축복의 핵심이다.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 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연습하고 결심함으로 이 안식이 찾아온 다. 청교도들의 성수주일을 본받아 이 복된 약속을 내것으로 삼자.

16. Lord of the Sabbath (Mark 2:23-3:6) 1996.8.18 week

Christians can receive spiritual blessings by observing the Sabbath day well. Keeping the Sabbath requires knowing that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and enjoying rest within it. In order to enjoy the blessings of those who keep this blessed day, let us consider the biblical teachings about the Sabbath in today's text.

1. Wrong views about the Sabbath

Today's world is deeply polluted with erroneous views about the Sabbath. It can be said that it is like living in serious darkness without knowing the blessings even though the One who completed the temple and the source of

wisdom has come. What is wrong with the Pharisees' view of the Sabbath here?

1) There was a bias toward saying not to work. Working means rubbing the wheat while passing through the wheat fields. We see a narrow application of truth. It was acceptable for David to eat the showbread in the temple. He lived under the light of the gospel. They did not know true rest. 2) I was ignorant of active work. He intentionally did the work of healing a person with a withered hand. The Sabbath is a day to enjoy better rest rather than being bound by the law. If you do not welcome the Lord of the Sabbath, you will not know true rest. Only by accepting Christ, the Lord of Sabbath, can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abbath.

2. How to keep the Sabbath

He said that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Here we find some things to do on the Sabbath. 1) Things that must not be done on the Sabbath include refraining from entertainment, not doing it for one's own sake, and not being a person who speaks and thinks as he pleases. 2) Things that must be done on the Sabbath must be respected as a joyful day. We must strive for worship, relief, and evangelism. In particular, worship must be successful. Worship is bowing to God. For worship, we must make it the center of all our lives. Abnormal faith comes from ignoring worship.

3. Blessings expected from keeping the Sabbath Look at Jehovah's promise in Genesis. It was said to be a day of blessing. The day when manna does not fall is the day when we meet God, the completion of manna. Isaiah 58:14 promises three things. 1) Take pleasure in Jehovah. 2) Jehovah sits on a high place on the earth. 3) He gives us Jacob's blessing. Experiencing rest on the Sabbath is the core of blessing. This rest comes by repenting of our sins, longing for the word of the Lord, practicing the word of the Lord, and making resolutions. Let

us imitate the Puritans' Holy Week and make this blessed promise our own.

17. 교회의 사도적 사명(막 3:7-19) 1996. 8. 25

교회는 사도적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도적 신앙고백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고백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 내는 권세를 주셨음을 본다. 교회가 받은 사도적 사명은 어떤 것인가?

1. 이 사명의 목표는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보내기 위하여 부르셨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저 마을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셨고 그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마28:19-20/1:8)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넓히는 일이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생의 목표이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긴박한 일이다.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면 된다. 주님의 주재권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겨자씨의 성장과 누룩의 영향처럼 나 자신이 말씀을 잘받을 때 그는 이 중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 사명의 특징은 영적전쟁을 수행하는데 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은 이 일을 많이 행하셨다. 군대 귀신들린자를 쫓아내셨고, 많은 귀신들린자들을 고치셨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도 나온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의 전쟁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전쟁이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고마운것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절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귀신의 교훈과 어두움에 사로잡힌 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치료받아야 할 병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있을때 치료되었다.

3. 이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은 임마누엘하는 삶에서 흘러나온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중의 하나라고 하셨다.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많이 일함으로서 이 능력이 나오는 줄로 안다. 그러나 성경은 주와 함께 있음으로서 이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신다. 세례요한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죽어서도 그 능력은 역사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왔다.

경건생활에서 나왔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12명은 거의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더니 마침내 변화되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들 역시 사도적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을 영위 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의 삶속에 이루어가야만 하겠다.

18. The Apostolic Mission of the Church (Mark 3:7-19) August 25, 1996

The church is a gathering of people founded on the apostolic confession of faith. An apostolic confession of faith is a confession of faith in Jesus as Christ. Here we see that God gave the church the authority to stay together to carry out its apostolic mission, to evangelize, and to drive out demons. What is the apostolic mission the church has received?

1. The goal of this mission is evangelism.

He was called to evangelize. He called to se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We must preach in the villages as well. I have food to eat that you do not know about. So, he appointed 12 apostles and called us from them. (Matthew 28:19-20/1:8) In other words, this is expanding the rule of God's kingdom. How important is this? This should be our life goal. This is the most urgent matter. You can become a mustard seed and leaven. The Lord's sovereignty must rule my heart. Like the growth of a mustard seed and the influence of leaven, when one receives the Word well, one can accomplish this important work.

2. The characteristic of this mission is to carry out spiritual warfare.

The Lord gave us th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The Lord has done this many times. He drove out the demon-possessed and healed many demon-possessed people. It also appears in today's text. This is like Joshua's war. It is a war against invisible evil spirits. It is not a war between flesh and blood. What I am thankful for is the fact that victory in this spiritual war is absolutely guaranteed. The powers of Hades cannot overcome. He told us to put on full armor. However, the fact is that today they do not know that they are caught in the darkness and the teachings of ghosts. I am a sick person who needs to be healed, and I was cured when I had faith that I would be healed by the power of God.

3. The ability to fulfill this mission flows from an Emmanuel life.

He said that being with the Lord was one of the purposes for which he had called them.

This is the life of companionship, the life of Emmanuel. People think that this ability comes from working a lot. However, the Bible says that this power comes from being with the Lord. Where did John the Baptist's power come from? Even in death, that ability worked. He came out of a life of walking

with the Lord. It came from a life of piety. With this ability, we can win spiritual warfare and expand the reign of God's kingdom. Almost all of the 12 people had many faults. However, after spending time with the Lord, he was finally transformed and became a person the Lord used. As those who have received the apostolic mission, we must also lead a life that always walks with the Lord and expand the kingdom of God in our lives.

19.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 (막3:20-35) 1996.9.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영연(Spiritual Relationship)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관계는 세상이 무너져도 영원히 남는 관계이기에 바울은 이 사랑관계의 영원성 주장했다.(롬8:38-39)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임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1.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바로 앞으로 이루어진다.

본문에 두가지 오해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는 외부로,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일어났다. 가족들의 오해-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여 만류하려 했다(인정적). 안식일에 대한 견해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인것 같다. 서기관들의 오해-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들린자(무당)로 생각했다(정치적).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몰랐다. 계시를 받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바로 알수가 없다(마16:17). 그를 알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을때 구원이 성립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계시를 받은 동생들 중 야고보, 유다는 나중에 주님의 종이되었다.

계시를 받지못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이는데 앞장 섰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는 짧은 기간일지라도 말씀을 통한 계시로 인하여 바른 열매를 맺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미친사람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양자택일만이 남았다. 그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2.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의 뜻을 따르는 자이다 (28-29).

서기관들은 성령의 역사를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성령을 훼방했다. 성령은 누구신가? 그는 인격이시다. 훼방을 받 으실 수 있으시다. 성령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행하신다. 성령의 뜻을 따 르지 아니할때 일어나는 일은 심각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 고도 거짓말로, 시므온은 물량주의로, 가롯유다는 최대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교함으로서 불행한 길로 갔다.

3.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이다.(34-35)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분명히 가르쳐주셨다. 그 아들을 바로 알고 그 성령의 증거를 환영하고 아버지의 인도를 감사함으 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는 자이다. 시편기자처럼 원수가 공격하는데도 주의 말씀을 묵상 하는 자이다. 노인보다 숭하며, 스승보다 숭하며, 원수보다 지혜로 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자이다. 주님의 가족이 된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복을 행유하기 바란다.

19. View of the Family in the Kingdom of God (Mark 3:20-35) 1996.9.1

Christians are members of God's family. Christians are made up of a spiritual relationship that transcends blood ties and regional ties.

Since this relationship is a relationship that will remain forever even if the world falls apart, Paul insisted on the eternity of this love relationship (Romans 8:38-39). The Lord also clearly showed that only those who do God's will are my family.

1. The family of God is formed right before Jesus.

Two misunderstanding movements occurred in the text. one out, the other out

- It happened from within. Misunderstanding by the family - The family tried to dissuade Jesus by saying he was crazy (approval). I think this is being said because it directly challenges the view on the Sabbath. Misunderstanding by the scribes - The scribes thought Jesus was a demon-possessed person (shaman) (political). All of them did not know Jesus properly. You cannot directly know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until you receive revelation (Matthew 16:17). When you know Him, this is faith. When there is this faith, salvation is established and history takes place. Among the younger brothers who received revelation, James and Judas later became servants of the Lord.

Most of the scribes who did not receive revelation took the lead in putting Christ to death on the cross. Even though the change of the Thessalonian believers was short-lived, it bore the right fruit due to revelation through the Word. How do you confess Jesus? You must choose one of the two. The only choice left is to either view him as a crazy person or believe him to be the son of God. Only those who confess Him as Lord can become members of His family.

2. God's family is those who follow the will of the Holy Spirit (28-29).

The scribes claimed tha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as the play of an unclean spirit.

blasphemed the Holy Spirit. Who is the Holy Spirit? He is a person. He can be blasphemed. The Holy Spirit works in secret. The Holy Spirit performs amazing works of salvation and healing. What happens when we do not follow the will of the Holy Spirit is serious. Ananias and Sapphira went down an unhappy path by knowing and lying, Simeon by materialism, and Judas Iscariot by rejecting his greatest love and apostasy.

3. God's family is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ir father's will (34-35) The Lord clearly taught us the family view of God's kingdom. Those who correctly know the Son, welcome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and gratefully obey the guidance of their Father are the Lord's family. He is one who follows his father's guidance. Like the psalmist, he is a person who meditates on the word of the Lord even when the enemy attacks. He is a person who has had amazing experiences, being more respectable than an old man, more respectable than a teacher, and wiser than his enemies. He is grateful to be part of the Lord's family and hopes to enjoy that blessing.

20. 약속된 백배의 열매 (막4:1-20) 1996.9.8 주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다. 말씀과의 관계를 다시 살핌으로 영혼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비유를 통하여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셨다. 그 중, 씨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백배의 열매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본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말씀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1. 말씀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문의 씨뿌리는 자는 인자와. 말씀의 사역자를 말한다. 언제나 오 늘이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 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있는가? 전하는 자와 받는자가 믿음을 화합 하지 않기 때문이다. 루스드라의 한 앓은 뱀이는 바울의 말씀을 듣 는 순간 믿음이 생겨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다. 예수님에게 제자들 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질문했다. 그럴때 주님 은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 우라하여도 되고 못할것이 없으리라고 대답하셨다.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벧전1:25에는 너희가 거듭난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것 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30, 60, 100배의 결실은 작은 생 명의 씨앗의 결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생명이 라는 사실을 믿는가? 성경이 생명이란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 의 내적증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열매가 맺히기까지 많은 장애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한다.

어떤 장애가 있는가? 1) 말씀을 잘듣지 못하게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

(길가의 마음)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듣지못하도록 바예수를 통하여

마귀는 역사했다. 2) 말씀을 지킬때 어려움이 몰려온다.(돌밭)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위대함은 그가 난관이 일어났는데도 이것을 믿

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3) 말씀의 성장을 막는 기운이 있다.(가시 밭)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향락주의가 그것이다. 이 모든

장애물은 자극적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긴장(TENSION)이 있

어야한다. 받으면 살고 안받으면 죽는다는 긴박감이 있어야한다. 죽어

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외치는 것이 설교라는 긴장의식이 오늘날

요구된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불신앙을 극복함으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어났다. 주님은 이런 받음을 통하여 100배의 역사를 이루신다.

3. 열매가 맺히기까지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대할때 위로를 경험하고, 죄를 책망받으며, 우리의 길에 비존을 보는 은

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매일 공급받아야한다. 다른데는 힘을 쏟

으면서 왜 이 좋은 것에는 약한지 모르겠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버리고 완전한 자리에 나가기 위하여 말씀의 공

급을 계속받아 그 속에 있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20. The promised hundredfold fruit (Mark 4:1-20) Week of September 8, 1996

It has become a season of paralysis. I hope that your soul will be blessed with abundant blessings as you reexamine your relationship with the Word. Jesus always demonstrated the power of the word through parables of the kingdom of heaven. Among them, in the parable of the sower, we see that God gave the promise of a hundredfold fruit. The key is how well we maintain a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Word. How can we establish a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Word?

1. You must have the confidence that the word is life.

The sower in the text is the Son of Man. It refers to a minister of the word. Yesterday and today, the Word has infinite power. But what is the reason why this ability does not appear? This is because the faith of the transmitter and the recipient is not unified. A crippled man in Lystra had faith the moment he heard Paul's words and was healed on the spot. The disciples asked Jesus why they could not cast out the demon. At that time, the Lord answered that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command this mountain to throw it into the sea. When does the work of rebirth of life occur? 1 Peter 1:25 says you were born again through the word of God. Being born from above is nothing other than the word bearing fruit. The 30-, 60-, and 100-fold fruition in today's text is nothing other than the result of a small seed of life. Do you believe that the Bible is life? The proof that the Bible is life is achieved through the testimony of Jesus and the internal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2. We must also know that there are many obstacles before fruit is born.

Are there any obstacles? 1) There is an attack from the devil that prevents us from hearing the Word well. (Heart on the Roadside) The devil worked through Bar Jesus to prevent Sergius Paul from hearing the Word. 2) Difficulties come when you keep your word. (rocky ground)

The reason why the Canaanite woman's faith was great was because she overcame difficulties through faith. 3) There is an energy that blocks the growth of the Word (thorny field). These are the worries of the world, the temptation of wealth, and hedonism. All these obstacles are irritating. Therefore, there must be tension when listening to the Word. There must be a sense of urgency that if you receive it, you will live, and if you don't receive it, you will die. A sense of tension is required today that preaching is what a dying person shouts to the dying. The history of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occurred through those who had faith by overcoming disbelief. Through this kind of reception, the Lord accomplishes His work 100-fold.

3. We must continue to receive the supply of the Word until fruit is borne. To achieve 30, 60, 100 times the results, you definitely need patience. I hope that when we encounter the Word, we will experience comfort, be rebuked for our sins, and have the grace of seeing vision on our path. To do this, we must receive it every day. I don't know why I'm weak on this good thing while putting my energy into other things. Where was the failure of the Canaanite spies? Because the promise of the Word seemed smaller than reality. In order to put off childish things and become perfect, I hope you continue to receive the supply of the Word and enjoy the infinite blessings contained therein.

21. 세상의 등불 (막4:21-25) 1996.9.15 주

성경에는 몇가지를 등불로 비유한다. 인간영혼(시18:28), 말씀(시119:105), 예수님(요8:12)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등불이 라했다. 이것은 비유로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밝혀야하는 중 대한 자리, 책임있는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세상의 등 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1. 하나님 주신 본래 지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한다.

그 지위는 바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지위이다. 21-22절에 보 면 그리스도인은 등불을 등경위에 두는 것 같은 자리에 있다 고 했다. 감추인 것,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 처럼 그리 스도인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마5:에서도 주님을 세상의 빛이라했다. 우리가 형편없는데도 빛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다(엡4). 어떤 방면의 빛인가? 모든 방면의 빛 이다.- 육적방면에도 빛이다. 세상문화의 빛이다.(문화를 개혁 해야 할 자리에 있다)- 영적 빛이다. (정신계, 영계를 밝혀야 할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빛의 역할을 회복하신것이다. 온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 진 것이다. (요14:) “내가 한일을 저도 할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당신은 바로 그런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일어나라. 이 시대의 파숫군으로 부르셨다. 들릴라와 같은 세 상 베게를 베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기 바란다.

2.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 엄청난 위치에 세우신 후에 우리 힘 으로

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다. 그는 권세를 모두 주셨다. 무슨 권세인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이다. 그래서 오 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하셨다. .

(1) 첫째, 신령한 귀를 주셨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천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세상을 분별 할 수 있는 귀를 주셨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사람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고 그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주의 계시의 문이 열릴 때 바로 깨닫는다(시119:126). 우리는 계시의 조명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한다.

(2) 둘째, 세상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주셨다

(25).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받았다. 있는자는 더 받는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까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먼 래를 내다보고 씨를 심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등불이다. 세상의 인도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책임진 리더들이다. 이 중대한 사명뿐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신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받아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1. The lamp of the world (Mark 4:21-25) 1996.9.15 week

In the Bible, several things are likened to lamps. The human soul (Psalm 18:28), the Word (Psalm 119:105), Jesus (John 8:12), and the life of a Christian are the lamps. As a metaphor, this means that Christians are in an important and responsible position to brighten the world. How can we serve well as a lamp to the world?

1. Awareness of the original status given by God must arise.

That position is the position of being a light to the world. In verses 21-22, it is said that Christians are like putting a lamp on a lampstand. Just as what is hidden and hidden must be revealed, Christians are bound to be revealed.

Matthew 5: also calls the Lord the light of the world. Even though we are poor, God has placed us in a place of light (Ephesians 4). What kind of light is this? It is light in all directions - it is light in the physical direction as well. It is the light of world culture. (We are in a position to reform culture) - It is spiritual light. (Christians are those who must illuminate the mental and spiritual worlds) The role of light that was given to Adam has been restored. The mission to rule over the whole earth has been given to us again. (John 14:) "The works I have done will he d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 Do you know that you are in just such a position?

wake up He was called to be the watchman of this era. I hope that the world will be like Delilah and rise up from the position of having lost its mission.

2. We must utilize the authority given by God.

So, after putting us in this incredible position, does the Lord tell us to do it on our own? no. He gave all authority. What authority? It is the authority that can handle this world. So, in the miracle of the five bowls and two, he said, "Give them something to eat." .

(1) First, he gave us spiritual ears. He gave us ears to hear the Word. He gave us ears to hear the sounds of heaven. He gave us ears to discern the world. Those who listen to the sounds of heaven can directly hear the sounds of people. A spiritual person is not judged by anyone, but judges everything himself. You will realize it right away when the door of the Lord's revelation opens (Psalm 119:126). We must ask God to increase the illumination of

revelation.

(2) Second, God gave us abundant things to supply the needs of the world.

(25). Christians have received everything. Those who have will receive more.

Just as the person who received five talents also received one talent. As we live on this earth, we must look far into the future and plant seeds. It is the lamp of God. He is the guide of the world. These are the leaders responsible for the era we live in. It is God who gives us not only this important mission but also abundant grace. I hope that you receive this and receive the blessing of living as a light to the world.

22. 하나님나라의 절대능력 (막4:26-34) 1996.9.25 주

비유란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다. 오늘 본문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해석해 주셨다고 했다(33절). 알곡비유와 겨자씨비유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려한다(성장능력-28, 32절).

1. 하나님나라는 절대적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씨뿌리는 비유는 조건적 의미가 포함되어있지만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다. 두 비유는 이점을 어떻게 말하는가? 싹-이삭- 열매- 추수하는 과정이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본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친히 이루심을 강조한다. 고린도교회에 대한 바울의 진단을 보라. 자라나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이사야 55:10-11에 나오는 말씀의 효력을 우리는 알고있다(비와눈/토지/싹/열매).

겨자씨비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는가? 1) 작은 것이 반드시 크게되어 새들이 깃드는 안식처가 된다고 했다(32).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그일을 이루신다.

2. 하나님나라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웅변보다 침묵이 낫다. 인간은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신다. 죄를 처리할때도 은밀하게 하신다. 알곡의 성장을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자고깨고하는 일만 할뿐이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겨자씨의 작은 것이 큰 안식처가 되는 것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나라 완성을 위하여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사역을 하실 때도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십자가 앞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 역시 홀연히 임했다.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 나가시기 바란다. 그럴 때 반드시 갇히는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정미로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정미롭게 응답하신다.

3. 하나님나라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고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하나님나라는 절대능력으로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수님의 성장과정, 교회의 역사를 보라. 겨자씨와 곡의 성장처럼 거칠 과정을 에누리하지 않았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나라의 능력을 맛본 자들로서, 현재의 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 하겠다.

22. Absolut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Mark 4:26-34) 1996.9.25 Week

A parable is a method that the Lord often uses to testify His Word. He said that he spoke in today's text so that it could be understood and personally interpreted it (verse 33). I am trying to think about the ability to build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parable of the grain and the mustard seed (growth ability - verses 28, 32).

1. The kingdom of God is achieved through absolute power.

The parable of the sower contains a conditional meaning, but here it emphasizes to us that it is unconditional. How do the two parables make this point? I see the process of sprout-ear-fruit-harvest proceeding quickly. It is not completed by anyone's hands. It is emphasized that God accomplishes this entirely Himself. Look at Paul's diagnosis of the Corinthian church. It is said that it is God who causes growth. We know the effectiveness of the words in Isaiah 55:10-11 (rain and snow/land/sprout/fruit). How does it appear in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1) It is said that small things will inevitably become big and become a haven for birds (32). 2) Christ is our only resting place.

God Himself accomplishes it.

2. The kingdom of God is accomplished in secret.

Silence is better than eloquence. Humans are noisy, but God works secretly. Even when He deals with sin, He does so in secret. No one knew about the growth of grain. People just sleep and wake up and do what they do. I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No one can explain how a small mustard seed can become a great sanctuary. In our lives today, we must be able to see God working secretly to complete the kingdom of God. When he sent Christ, he told him not to let anyone know that he was the Messiah even during his ministry. Even in front of the cros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also came suddenly. Therefore, he is in secret, and he wants to come before Him who sees in secret. When you do that, you will experience the grace of God who will surely repay you. When you pray with sincerity, the Lord responds with sincerity.

3. The kingdom of God is a kingdom that is achieved through a process that must be completed. We saw that the kingdom of God is achieved in secret with

absolute power. And you have to go through all the processes. Look at the growth process of Jesus and the history of the church. He did not underestimate the rough process of growing a mustard seed and grain. Paul also said that we must suffer many things before w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as those who have tasted the power of the kingdom, we must know that all of our current work will work together for good, and we must become those who trust Him until the end.

23. 광풍을 잔잔케하는 능력 (막4:35-41) 1996.9.29 주

오늘은 하나님나라의 능력이 실제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중심해서 하나님나라의 절대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오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배운다.

1. 광풍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해하다가 주무셨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 주님의 배를 강타하여 죽을 지경이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 몰려온 사실을 본다. 그것도 갑자기 몰려왔고 무방비상태인데 몰려왔고 심하게 몰려왔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요 섭리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쉬시고 계시는데 이 풍랑은 몰려왔다. 그리스도에게 몰려온 광풍은 우리에게도 몰려온다. 무슨 광풍인가? 건강의 광풍, 경제의 광풍, 그리고 안전의 광풍이 몰려온다. 욕이 그 대표적 케이스다. 그는 한날 한시에 재산도 건강도 가정도 모두 잃어버렸다. 갑작스러운 강풍은 그를 연속해서 강타했다. 그럴때 그는 원망하지않고 불평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의 평소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광풍은 몰려온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바울 역시 그런 사상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다. 야고보 역시 시험당할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

2. 광풍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잔잔하게된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있다가 몰려오는 광풍으로 죽게되었다. 그때

저들은 무엇을 했는가? 주님을 깨우며 가로되 우리의 죽게된 것을 왜 안돌아보십니까 라고 반문했다.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 하셨다. 그들의 불신앙적이 두려움을 보시고 책망 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약한 믿음의 간구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 기도란 우리편의 의사전달이며 우리가 당장 위급한 일을 당할때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일이다. 광풍이 몰려올때 그때하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바리새인의 외식의 기도를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많아야 할줄 안다. 어린아이와 같이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믿음으로 그 즉석에서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채워져있다.

엘리야의 간구, 백부장의 간구, 그리고 희생을 치르는 진실된 간구에 주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시다고 했다.

3. 무슨 광풍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잔잔케된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광풍을 잔잔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은 즉석에서 꾸짖었다. 광풍을 일으킨 것은 마귀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광풍이 이미 잔잔할수 밖에 없는 엄청난 안식을 보고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광풍은 잔잔하였다. 이것이 대 전제이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나갈때 광풍은 잔잔할 수 밖에 없다. 건강의 광풍, 경제의 광풍, 불안의 광풍 그리고 모든 광풍 이 내 마음에 있는 주의 말씀으로 잔잔케 될 수 있다. 당신 속에 있는 광풍이 무엇인가? 그것도 주의 말씀앞에는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라.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23. The power to calm the storm (Mark 4:35-41) 1996.9.29 Week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the absolut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arises, focusing on an incident that shows how the power of the Kingdom is applied to real life. In today's incident, Christians also learn the important truth that they can calm the storm with the word of the Lord in Christ.

1. Storms come to Christians too.

Jesus fell asleep while sailing with his disciples. Suddenly a violent wind arose on the Sea of Galilee and struck the Lord's boat, destroying it. Here we see that a storm came to the boat that the Lord was on. It came all of a sudden, and I was defenseless, but it came and it came violently. The Son of God, the Creator and Providence of this world, is now resting, but this storm has come. The storm that came upon Christ also comes upon us. What kind of storm is this? A health storm, an economic storm, and a safety storm are coming. Job is a representative case. He lost all his wealth, health, and family in one day. A sudden strong wind struck him repeatedly. At that time, seeing that he did not grumble or complain, it is clear that his usual faith knew the truth that storms come even to people of God. Paul also has such thoughts. He said that there was no temptation more than what a man could bear. James also said to be happy when we are tested.

2. The storm becomes calm by using the weapon of prayer.

The disciples were with the Lord and died in the storm that came. What did they do then? He woke the Lord up and asked, "Why don't you look at our death?" Why are you afraid of the Lord? He rebuked them for having little faith. He saw their fear of unbelief and rebuked them. The Lord prayed for their weak faith, but He worked through those prayers. Prayer is a form of

communication on our part and a specific request for help when we are faced with an immediate emergency. The prayer you say when a storm comes is a true prayer and a prayer that pleases God. We can escape the hypocritical prayers of the Pharisees. We know that there should be many prayers like this. Like a child, the Lord takes care of the problems of reality. It is something you ask for immediately with faith. The Bible is full of these things.

He said that the Lord has great power in Elijah's prayer, the centurion's prayer, and the sincere prayer of sacrifice.

3. Any storm can be calmed by the word of the Lord.

We pray, but it is our Lord who calms the storm. The Lord rebuked him on the spot. It was the devil who caused the storm. We Christians are seeing a tremendous rest in which all the storms have no choice but to calm down. With the death of Jesus, the storm calmed. This is the main premise. So, when we move forward by combining faith with the Word, the storm is bound to calm down. The storm of health, the storm of the economy, the storm of anxiety, and all storms can be calmed by the word of the Lord in my heart. What is the storm within you? Even so, we cannot help but become powerless before the word of the Lord. Go to prayer and go to the word. This is because there is a level land in front of Zerubbabel.

24. 영계의 주권자 (막5:1-20) 1996.10.6 주

광풍을 잔잔케하신 주님은 자연계의 주 되심을 드러내심으로서 그의 룡치영역의 범위가 어떠함을 보이셨다. 오늘 말씀에서는 영계의 주되심을 보여주셨다.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은 하늘의 주권자도 되신다 (마28:19). 영계의 주인되신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1. 마귀의 정체를 앞으로서 (3-5)

예수님이 거라사지방을 가려고 할때 귀신들린자를 만났다. 마가는 그 귀신들린자의 개인의 신상보다도 그를 주도하고 있는 마귀의 정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 - 그는 더럽다(2). - 그는 초능력으로 일한다(3-4). - 그는 흉악하다(5). - 그는 자학케한다(5).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것을 본다. - 영적혼돈 과 공허속에서 살아가며 가정생활이 지저분하다. 자살행위가 보편화 되었다. - 무절제는 모두 그의 소관이다. 성막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거짓과 교만이 특징이다. 우리는 영계의 주인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마귀를 정체를 바로 알고 두가지를 확신해야한다. -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하고 - 자아부인을 배워야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고 했다.

2. 그리스도가 영계의 주인이심을 앞으로서(1-2, 3-5, 6-17)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바로 알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확신해야한다. 정말 주님은 영계의 주권자이신가? 악신과 선신 간의 대적이 아니다. 오직 그만이 주권자이시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마귀가 즉시 알아보았다(7).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았다. - 주님의 명령에 마귀가 떠나갔다(□. - 자연의 운행을 통제하셨다(13).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 2천마리에게 들어가 지중해에 몰사했다. 그리스도는 영계의 주인이요 왕이시다. 그 왕적권위는 그의 말씀에서 나온다. - 마귀가 그의 말씀에 통제되었고 - 마귀가 그의 말씀에 의하여 돼지에게 들어갔다. 그의 말씀의 권위안에 사는 자가 복되다. 요15:5 저가 내안에 내가 저안에 거하면 이 삶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의 이름의 권위아래 사는 자가 복되다.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서 마귀가 떠 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

3. 자신의 영적 변화를 이웃에게 증거함으로서 군대귀신 지핀자에게 광명이 왔다(15).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졌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생겼다. 주님은 네 친족에게 가서 네게 일어난 변화를 알리라고 하셨다. 그는 왕을 알리는 메센지가 되었다. 그 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내 이웃에게 증거할 영적 메센저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는가? 엡2:1-2에 의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던 자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자가 영적소욕을 따르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메센저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변화를 이웃에게 알리기 원하신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24. Sovereign of the spirit world (Mark 5:1-20) 1996.10.6 week

The Lord who calmed the storm revealed the extent of His realm by revealing Himself as the Lord of the natural world. In today's word, He showed us the Lord of the spirit world. The Lord, who is the sovereign of the earth, is also the sovereign of heaven (Matthew 28:19). How can we follow Him, the Lord of the spiritual world?

1. By knowing the identity of the devil (3-5)

When Jesus was about to go to the Gerasenes region, he met a man possessed by a demon. Mark reveals more specifically the identity of the devil who is leading the demon-possessed person than the personal details of the person. - He is dirty (2). - He works with supernatural powers (3-4). - He is vicious (5). - He inflicts self-harm (5). Today we see the devil at work in the lives of modern people. - They live in spiritual chaos and emptiness and their family life is messy. Suicidal behavior has become common. - All intemperance is his business. Rather than living in the tabernacle, one lives away from it. In short, the devil is characterized by lies and pride. If we want to follow the Lord, the Lord of the spirit world, we must correctly identify the devil and be sure of two things. - We must realize that our fight is against evil spirits - We must learn self-denial. He said, "If anyone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2. From now on, Christ is the Lord of the spirit world (1-2, 3-5, 6-17)

Not only must we know who is the ruler of the power of the air, but we must also be confident that Christ is the Lord. Is the Lord really the ruler of the spirit world? He is not an adversary between evil and good gods. He alone is sovereign. What is the evidence?

- The devil recognized him immediately (7). He recognized him as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 The devil left at the command of the Lord (□). - He controlled the movement of nature (13). Unclean spirits entered 2,000 pigs and drowned in the Mediterranean Sea. Christ is the owner and king of the spiritual world. His royal authority comes from his word - the devil was controlled by his word - and the devil entered into the swine by his word. John 15:5 Blessed is he who lives in me and I in him. Blessed are those who live under the authority of His name. In the name of Jesus, the devil will leave and the problem will be solved.

3. Light came to the person who had the military spirit by testifying to his neighbors about his spiritual change (15). Wearing his clothes, my mind became sound and I had a heart to follow the Lord. The Lord said to go to your relatives and tell them about the change that has happened to you. He became a message to the king. All Christians are called to be spiritual messengers to witness to their neighbors. If you are a Christian, what kind of spiritual change has occurred? According to Ephesians 2:1-2' - the dead have been raised. - Those who followed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came to follow the Lord. - Those who followed fleshly lusts now follow spiritual desires. The Lord wants us all to be such messengers. You want to let your neighbors know about your changes. Even today, the Lord builds his church in this way. This is exactly what it means to follow the Lord.

25. 생명의주, 예수 (막5:21-24, 35-41) 1996.10.13 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생명문제의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엡2 1-2, 요일5:11-12)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여러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것이다. 본문은 어떻게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이 드러났는지를 말해주는가?

1. 단순한 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주되심을 알 수 있다.

(1) 야이로의 간구 (21-24) 겐손의 태도가 있었다. 엎드려 간구했다.

그는 죽었다는 전갈을 듣고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에 그는 단순한 믿음을 지켜 나갔다. 그 후 예수님과 함께 은밀한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의 단순한 기도(오직 예수)가 그의 문제를 해결할 뿐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주되심을 발견하게했다.

(2) 엘리야의 일곱번의 단순한 기도, "비를 주소서"는 자기의 고안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한 것이다. 이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응답은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는 나타났다.

(3) 복잡한 생각, 복잡한 활동, 복잡한 사건이 우리에게 엄습해도 그날 그날을 청산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훈련이 필요한줄 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할것ियो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2. 계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알수있다.

(1) 단순한 믿음을 파수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따른다. 이런 장애로 인하여 그 길을 걷는것에 대하여 자신을 갖지못할 때가 있다. 36절, 예수님은 장애를 만난 그에게 "두려워하지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 셴다.

세가지 장애가 찾아왔다. 일을 지체하는 사건이 있었다. 절망의 소문이 들렸다. 비웃음이 있었다. 주검이라는 현실(reality)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변하지않고 예수님만을 믿었다.

(2)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날때도 주님의 관찰은 믿음에 있었다. 귀신도 참믿음이 있을때 도망갔다. 이 믿음이 적고 크고는 시험당할때 알아본다. 시험이 올때 이 믿음은 더 분명해진다.

(3) 엘리야의 일곱번기도는 자연법칙을 바꾸는 기도다. 야고보는 너 희도 그것을 할수 있다고 권고한다. 예수님의 세번기도는 자아를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

(4)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큰 믿음으로 된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건이 일어난다.

3.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달리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났다. 말씀하실때 죽은자가 살아났다. 선포된 말씀이 그를 살게했다. 재창조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2) 나사로를 고치실때도 "나오라"고 하였다. 베로 동인채로 나왔을 때 "풀어 놓아 다니게하라"고 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3)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생명은 일어난다. 예수님은 살려 주는 영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무한한 강력으로 역사하신다. 그에게 와서 그의 말씀에 접촉 한자는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한다. 그대, 그 분에게 나아가라!

25. Jesus, the Lord of Life (Mark 5:21-24, 35-41) 1996.10.13 Week

Anyone who is a Christian is someone who has experienced great changes in life issues. (Ephesians 2

1-2, 1 John 5:11-12) Then, isn't it natural for Christians to experience changes in their lives? Peter's confession that Jesus is the Lord of life will become our confession. How does the text tell us that Jesus as the Lord of life is revealed?

1. Through simple prayer, we can know that Jesus is the Lord of life.

(1) Jairus' petition (21-24) There was an attitude of humility. I bowed down and prayed.

When he heard the message that he had died, he simply kept faith in the Lord's words, "Do not be afraid, just believe." After that, he experienced the work of life in a secret place with Jesus. His simple prayer (only Jesus) not only solved his problem, but also helped him discover that Jesus is the Lord of life.

(2) Elijah's seven simple prayers, "Please give me rain," were not his own invention, but were prayed according to the Lord's promise. God is pleased with this simple prayer. The answer occurred and the work of life appeared.

(3) I know that even though complex thoughts, complex activities, and complex events come upon us, we need the discipline of living each day in order.

"Tomorrow will worry about tomorrow, and each day will have enough of its troubles."

2. We can know through continued faith.

(1) There are many obstacles to breaking simple beliefs. Because of these obstacles, there are times when you do not have confidence in walking that path. Verse 36, Jesus said to the person who faced obstacles, "Do not be afraid,

just believe.” Three obstacles arose. There was an incident that delayed work. Rumors of despair were heard. There was ridicule. There was a reality called a corpse. However, his faith did not change and he only believed in Jesus.

(2) The work of life occurred through faith. Even when the storm broke out, the Lord's observation was based on faith. Even ghosts ran away when there was true faith. You will find out when your faith is small or big and is tested. When testing comes, this faith becomes clearer.

(3) Elijah's seven prayers are prayers that change the laws of nature. James advises that you too can do it. Jesus' three prayers were prayers that contributed to his self and fulfilled the Lord's will.

(4) Accomplishing the will of the Lord requires great faith. “Woman, your faith is great; it will be done for you as you wish.” The incident occurs.

3. It can be known through the proclaimed word.

(1) Running, the work of life took place with the words, “I tell you, girl, rise up.” As he spoke, the dead man came back to life. The proclaimed word made him live. He is the Lord of re-creation. Jesus alone is life.

(2) When He healed Lazarus, He said, “Come out.” When he came out with Berodong, he said, "Let him loose and let him go."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even though he dies, will live,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3) Life arises when we receive the Word correctly. Jesus is the life-giving spirit. He is the Lord of life. This Lord lives within us now. He works with infinite power. Those who come to him and come into contact with his words will definitely experience the work of life. You, go to him!

26. 치료하는 교회 (막5:25-34) 1996.10.20. 주

우리는 지난 주 한 교포의 자살한 일을 알고 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순간에 끊어버릴까?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치료자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말끔히 치료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1. 한 여인의 기구한 문제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다. 피가 마르지 않았고(백혈병) 많은 의사를 찾았고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으나 더 중하여졌다. 이런 절망 적이 일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가? 아니 나에게는 없는가? 왜 하나님은 이 런 절망의 때까지를 기다리실까? 거기에는 겹손을 배우라는 중요한 메세 지가 들어있음을 알아야한다. 주님 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데 있다.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엘 리사 선지자를 찾았다.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 교만이 꺾여 겹손할때 병을 고쳤다. 사람이 다 죽어가도 교만은 꺾이지 않는다. 이것이 불신앙 의 어두움이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해도 진정 그가 자기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만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 인간의 절망 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진정한 절망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절망이라하면서 기도하지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것은 교만이다. 그래도 의지할 바가 있으니 까 부르짖지 않는다. (마5:3-5)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는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움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기 바 람다.

2. 예수님만을 믿음으로서 (27-29)

절망의 자리에서 치료된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일 어났는가?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시작되었다. 라합도 소문을 듣고 상천 하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여리고성의 멸망때 유 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갔다. 자원의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즉시 나타났다. 작은 아들의 회심을 보라.(눅15)

베드로 의 회개를 보라. 그는 통곡하면서 즉시 회개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갈줄을 몰랐다. 절대믿음이였다. 예수님이 전능한 왕이심을 인정했 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 은밀하여도 주님은 이것을 아신다 는 믿음,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겹손의 마음으로 나아갔다. 우리도 이런 믿 음을 가질수 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서, 행동으로 옮김으로서 나아 갈수 있다. 주님이 모두 처리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효력이 오지 않겠는가?

3.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드림으로서 (30)

주님은 이것을 느끼시며 아셨다. "누가 내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의 말 씀의 보증을 믿음으로서 그는 병만 고친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 았다. 34절을 보라. "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 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십자가 상에서도 그는 큰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시 고 하나님과만 상대로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 를 담당하신자로서 책임을 지시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모 든 영육의 질고가 왜 치료되지 않겠는가? 절대 치료될것이다. 이것이 우리 의 믿음이다. 지금 당신의 절망적인 문제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여인처럼 그만을 믿고 겸손히 나아가라,
진실되이 나아가라,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시려고 죽어주셨다.
우리교회는 먼저 치료받고 나서 이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하겠다.

26. Healing Church (Mark 5:25-34) 1996.10.20. main

We are aware of the suicide of a Korean citizen last week. How desperate would it be to end one's only life in an instant? It is our belief that no matter how hopeless a situation is, you will be completely healed as long as you come to the healer Jesus. How were you treated?

1. One woman's strange problem

There was a woman who suffered from hemorrhage for 12 years. Her blood did not dry up (leukemia). She visited many doctors and spent all her money, but her condition worsened. Are there any despairing incidents like this around us? No, I don't have it? Why does God wait until such a time of despair? You must know that it contains an important message to learn humility. It is to help us learn to rely only on the Lord. Naaman, a general from the kingdom of Aram, visited Israel's prophet Elisha to cure his leprosy. How did he heal the disease? When my pride was overcome and I became humble, I was cured. Even if everyone dies, pride does not break. This is the darkness of unbelief. No matter how despairing a person is, if he can truly overcome his pride and seek God, there is hope for him. Human despair is the beginning of God. Those who feel true despair are destined to seek God. However, the reason we do not pray and stay away from God because of despair is because of pride. So

not praying is pride. Still, I don't cry out because I have something to rely on. (Matthew 5:3-5) Therefore, the place of your despair is the place where hope begins. I hope you deeply realize that you are helpless before God.

2. By believing only in Jesus (27-29)

Where did healing from a place of despair begin and what process did it take? It started with hearing rumors about Jesus. Rahab also heard the rumor and believed that the God of Israel in the upper heavens and lower summer was her God and became the only savior when the city of Jericho was destroyed. He came to Jesus on his own. I have a resourceful mind.

So it showed up immediately in action. Look at the conversion of the younger son. (Luke 15) Look at Peter's repentance. He immediately repented, weeping bitterly. However, Judah did not know how to go before God. It was absolute faith. They acknowledged that Jesus is the almighty king. He moved forward with the belief that he would be healed by just touching his clothes, the belief that the Lord knew this even if it was secret, and the humility that even a crumb was okay. We too can have this kind of faith. You can move forward by receiving the word as it is and putting it into action. The Lord has taken care of everything, so why can't this effect come to us?

3. By accepting the testimony of Jesus (30)

The Lord felt and knew this. "Who touched my clothes?" By receiving the assurance of the Lord's word, he not only was healed but also received the salvation of his soul. See verse 34. "Your faith in your daughter has saved you; go in peace, be healed and be well." Even on the cross, he remained silent in the midst of great suffering and spoke exclusively to God. Why did you do that? It was to take responsibility as the one who bore all our sins and sufferings. So why can't all the spiritual and physical ailments of God's people be healed? It

will absolutely be cured. This is our faith. Your hopeless problem can be cured now. She, like this woman, trusts Him and goes humbly, goes truthfully, and the Lord died to heal it. Our church must become a church that first receives healing and then heals others with this grace.

27. 전도자여 일어나라 (막6:1-3) 1996.10.27 주

우리 본문에는 두가지 사건을 말한다. 하나는 주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과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열두제자들을 두사람씩 짝지어 전도의 사명을 감 당하게 하심을 본다. 우리는 이 두가지 사건에서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를 배울 뿐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고 전 하기 위하여 자던 잠을 깨어 일어나야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바로 이것이 교 회 존재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목적이기 때문이다.

. 1. 그리스도인은 주계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preaching & teaching)이다. 죄를 회개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것이다. 주님이 친히 이 두가지를 힘쓰셨다. "회개 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전하셨고 6절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했다. 제자들 역시 이 두가지를 힘썼다(12). 베드로의 외침은 회개와 믿음이었 다. 한 날에 3천이나 되었다. 고넬료 가정의 부흥운동이 어디에 있었는가? 회 개와 믿음이었다. 행20: 에 보면 바울의 전파한 내용 역시 회개와 믿음이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 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존재 이유이다(마28:19-20). 그 러므로 전하는 일이 계속되어야하고,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어야한다. 우리교회 는 회개하고 돌아오며 잘 믿도록 도와주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가?

2. 그리스도인은 주계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았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다(12).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사람들 이 놀랐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심으로 증명하셨다. 왜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가 그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가 없기에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다. 불신 때문이라고 했다. 선입견을 가 지고 대하였다. 능력을 행할수가 없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이 믿도 록 힘을 준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처럼 역사를 일으켰다. 오순절 사건에서도 간절히 기도했고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모인곳이 진동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우리교회는 이런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말이나 모양으로만 그럴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권세를 사용하여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모두 다 이 권세를 적용하기 바란다.

6.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주계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7-11) 의식주 문제를 보장받았다. 단벌과 지팡이만 가져가라고했다. 그 외에도 할 말을 성령이 주신다고 했다(마10:16-23). 상급을 주신다고 했다. 역사상에 하 나님의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는가? 교역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내대구 감당해야하며 평신도들도 이 복음을 위하여 있는 처소에서 힘써 증거 해야한다. 거짓 기독교, 거짓 복음이 난무한 이때에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하겠다. 예수님이 주거하였고 제자들이 증거하였고 주 예수를 믿는 선진들이 증거하였던 이 복음을 우리는 말로서, 삶으로서 증거하기 위 하여 심혈을 쏟아야한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우리가 가진 생애가 이것하라고 주신 줄 알고
지금 일어나야한다.

27. Rise up, evangelist (Mark 6:1-3) 1996.10.27 week

Our text speaks of two events. One tells of the Lord's teaching on the Sabbath in the synagogue of Nazareth, his hometown, and the unbelieving response of the people, and the other sees the Lord pairing up the twelve disciples into pairs to carry out the mission of evangelism. From these two incidents, we not only learn what the “mission of an evangelist” is, but also learn that the church called as an evangelist must wake up from its slumber to teach and preach to the world. This is because this is the purpose of the church’s existence and the purpose for which Christians are called.

. 1. What mission have Christians received from the Lord?

It is preaching and teaching the gospel. He tells us to repent of our sins and believe in Christ. The Lord Himself worked hard on these two things. He preache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he said in verse 6, “He went about teaching.” The disciples also strived for these two things (12). Peter's cry was one of repentance and faith. There were as many as 3,000 in one day. Where was the revival movement of Cornelius' family? It was repentance and faith. Acts 20: In Acts 20, what Paul preached was also repentance and faith.

Paul said, “I do not consider my life of any value to myself in order to finish the work of testifying to this gospel.” This is the reason the church exists today (Matthew 28:19-20). The preaching of the word must continue, and the teaching must continue. How much effort does our church put into helping

people repent, come back, and believe well?

2. What power have Christians received from the Lord?

He said, “He gave him power to cast out demons” (12). He said that he was given the power to control supernatural powers. In Jesus' hometown, people were amazed to see the Lord's wisdom and power. He proved this by giving his disciples th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Why do we who have been given this authority not take effec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prayer. It was said that this kind of thing cannot come out except through prayer. They said it was because of distrust. He treated me with prejudice. He could not perform miracles. Prayer gives us the strength to truly believe. The disciple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made history happen like a rolling fireball through prayer. He prayed earnestly even during the Pentecost incident and prayed earnestly even in the midst of threats and persecution. The place where they gathered was shaking and they boldly preached the gospel. To what extent is our church using this authority? We need someone who not only does this in words or appearance, but actually uses this authority to spread the gospel. I hope everyone applies this authority.

5. Lastly, what promise have Christians received from the Lord? (7-11) Food, clothing and shelter issues were guaranteed. He told me to take only a suit and a cane. He also said that the Holy Spirit would give him what to say (Matthew 10:16-23). He said he would give me a reward. Who were the people used by God in history? Ministers must sacrifice their lives for this gospel, and laypeople must also testify diligently in their places for this gospel. At a time when false Christianity and false gospels are rampant, we must carry out our mission as evangelists. We must pour our heart and soul into testifying with words and lives of this gospel, which Jesus lived in, his disciples testified

about, and the forefathers who believed in the Lord Jesus testified about. We must wake up now, knowing that the talents, wealth, and life we have were given to us for this purpose.

28. 능력의 주 예수 (막6:14-29) 1996.11.3

하나님나라의 절대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
세례요한보다, 엘리야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아니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자 자신이시다.

1.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당대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말라기 선지의 예언(4;5)의
성취로 생각했다. 구약의 엘리야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활동
하던 선지자다. 능력의 선지자로 통한다. 하늘에 비를 끌어내렸고 죽은
자를 살렸고 사르밧과부의 경제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
야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 하나였지만 그리스도
는 그 선지자(The Prophet)이다. 그 앞에는 못 고칠 병이 없으셨다. 많은
병인,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각색 병든자를 다 고치셨다.

요단강을 가르도록 명령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이 능력 많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2. 예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뛰어난 공훈을 가지고 계신다.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중 예레미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공훈을 베푸시며 인내 하셨던 것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예레미야를 보라. 그는 인내의 사람이다. 눈물의 사람이었다.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욱 더 고난을 많이 당한

슬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셨다. 예루살렘의 외식을 보고 눈물 흘리셨고 겿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이 필요한 시대에 남을 비난하는 것 만으로는 약하다. 오늘 본문의 해룻을 보라. 눈물이 없는 자이다. 음란, 광포가 가득찼고, 포학이 충만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 후는 심판이다. 눈물이 없고 공허이 없는 마음에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공허의 마음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치료를 맛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3.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나신 의를 가지고 계신다.

사실상 본문의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가리킨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일한다고 했다. 그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해룻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살아난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죽었지만 여전히 일하는 그의 영적권위는 그가 가진 의 때문이었다. 권세와 능력은 정직과 의에서 나온다. 칭의 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 마귀와의 싸울때 의의 흥배를 붙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으로 무장해야한다. 그리스도인은 정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직자가 되어야한다. 세례요한처럼 위정자의 잘못을 지적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경건을 보라. 다리오왕이 두려워 떨었다. 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모두 죽었는가?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40년이란 세월 이 흘렀는데도 기회를 얻지못했다.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은 경건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바로 살아 가는 비결이다. 진정한 의의 원천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되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28. Jesus, the Lord of Power (Mark 6:14-29) 1996.11.3

The absolut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comes only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He is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Elijah, and the prophets. No, they were merely tools used by God, but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 Creator Himself.

1. Jesus has greater power than Elijah.

People of the time thought it was Elijah. They thought it was a fulfillment of the prophet Malachi's prophecy (4;5). Who is Elijah of the Old Testament? He was a prophet who worked i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He is known as a powerful prophet. He brought rain down from the sky, raised the dead, and solved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widow of Zarephath. However, Jesus is more excellent than Elijah. Elijah was one of the prophets, but Christ is the Prophet. There was no disease before him that he could not cure. He drove out many sick people and many demons, and healed all kinds of sick people. It was Jehovah who ordered the Jordan River to be divided. Who is that Jehovah? This is the Jesus of the New Testament. That is why he called Jesus "Lord Jesus Christ." Obey the commands of this mighty One, for nothing is impossible before Him.

2. Jesus has greater mercy than Jeremiah.

He was said to be one of the prophets. Among them, there were some who thought it was Jeremiah. It seems to be because he showed mercy and persevered even in the midst of many tribulations. Look at Jeremiah. He is a man of patience. He was a man of tears. He was also ostracized. Our Lord was a man of sorrow and tears who suffered even more than that. He saw the

hypocrisy of Jerusalem and He wept, and He wept in the Garden of Gethsemane. In a time when tears are needed, it is weak to just criticize others. Look at Herod in today's text. He is the one without tears. It was full of obscenity, ferocity, and tyranny. The function of conscience was paralyzed. After that is judgment. Gratitude does not arise in a heart without tears or compassion. I hope you will jump into the compassionate heart of Jesus and become a person who can taste the freedom and healing He gives.

3. Jesus has a righteousness that surpasses that of John the Baptist.

In fact, Elijah in the text refers to John the Baptist. He was said to work by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He was a righteous man of his time. Herod went so far as to think that Jesus was the resurrected version of John the Baptist. Even though he died, his spiritual authority, which still works, was due to his righteousness. His authority and power come from honesty and integrity. All power comes from justification. He said that when fighting the devil, he should wear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God's people must be armed with righteousness and godliness. Christians must be honest people who have influence even in the political world. We need someone like John the Baptist who can point out the mistakes of those in power. This is true authority. Look at the piety o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King Darius trembled in fear. Why did all the first generation of Israel die? Because "godliness" has been lost. As a result, even though 40 years had passed, I still did not get a chance. How pitiful are they? Our life today is godliness. Restoring this is the secret to living properly on this earth. I hope that we will become people who walk with the Lord, the source of true righteousness, and become people whom God uses.

29. 감사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다 (막6:30-44) 1996.11.10

본문에는 오병이어로 5 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온다. 마가는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풍족한 결과를 강조하고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생활로 인하여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진리를 발견한다.

1. 영적 안식이 없으면 풍성한 삶이 없다.

12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자, 주님은 잠깐 쉬라고 하시면서 한적한곳으로 이끄셨다. 역시 거기서도 쉴 수 없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제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안식은 몸의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배운다. 풍성한 삶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배운다. 요10:10절의 약속은 여전히 영적인 문제해결의 결론으로 오는 것이다. 영생의 문제(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자는 아무리 귀중한 자리에 있어도 참만족이 있을 수 없다. 제자들은 전도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영적관계가 바로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겨우 합리적인 것에만 매어달리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 속에서도 바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만나가 없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나갈때 그들에게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었던 것이다. 여리고를 점령할때도 여전히 풍성한 삶은 순종관계를 계속 지켜나갈때 주어지는 결과였다.

2.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간다. 33-34에 "목자없는 양"과 같다고

했다. 고독과 방황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목자없는 자이다. 시23: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했다. 요10: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로 모셨는가?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푸른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라.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의 넘치는 은혜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광야의 모세는 만나를 40여년간 주었지만 제2의 모세되신 주님은 영원한 만나이신 자신을 영원히 주셨다. 그 효력은 언제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안기기를 싫어 한다. 다른 곳에 안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드려라. 그분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구하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라.

3.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삶이 있을때 찾아온다. 그들의 시급한 문제가 먹을것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나? "사먹게하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것을 찾으셨다. 그것은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나누어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해도 하나님께 감사할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엘리사의 한 기적을 보라. 신학생 가정이 빛을 켤때 기름그릇을 빌리라고 했다. 있는 기름병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있는 것을 감사하라. 작은것이라도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29. Gratitude is the secret to an abundant life (Mark 6:30-44) 1996.11.10

In the text, there is an incident where God performs a miracle of feeding 5,000 people wit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Mark here emphasizes the abundant result of “having eaten to the full.”

Christians discover the truth that they enjoy this abundant life through a life of gratitude.

1. Without spiritual rest, there is no abundant life.

When the 12 disciples returned from preaching and reported, the Lord told them to rest for a moment and led them to a quiet place. He couldn't rest there either. People came in droves and put down their problems. Here we learn the precious truth that true rest is not rest of the body, but rest of the soul. We learn that abundant life comes when we solve spiritual problems. The promise in John 10:10 still comes as a conclusion to solving spiritual problems. Those who have not solved the problem of eternal life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cannot be truly satisfied, no matter how precious their position may be. It was a place where disciples could establish a spiritua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obedience to evangelism. However, because they could not escape their egocentric thinking, they had no ability to solve any problem that arose. I was only clinging to what was reasonable. Even in the miracle of manna, they were unable to enjoy an abundant life because proper relationships were not established. Even in the natural relationship of eating the produce of Canaan without manna, they were promised an abundant life if they maintained a proper relationship with God. Even when Jericho was occupied, an abundant life was still the result of maintaining a relationship of obedience.

2. Abundant life flows from the love of Christ.

We live in an age where love is dry. In 33-34, it is said that they a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It is loneliness and wandering. This is life. A person without Christ is without a shepherd.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will not want.” In John 10: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his sheep. Have you accepted Christ as your shepherd? Guided by Him, go to green pastures and calm waters. The Lord fed them to their fill. I received grace from his overflowing grace.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came from his love. Moses in the wilderness gave manna for 40 years, but the Lord, the second Moses, gave Himself as eternal manna forever. That effect has always continued to this day. He said,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hunger.” People hate being embraced by this love. It is held somewhere else. Accept God's love. Come before Him sincerely and ask Him. Pray and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receive His Word as my life.

3. An abundant life comes when you have a life of true gratitude to God. Their urgent problem is not having food. What was their solution? “Let them buy and eat” is their method. But the Lord sai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 Lord was looking for what they had.

He took it and distributed it with congratulations, and a miracle occurred. No matter how small it is, when you give thanks to God, amazing miracles happen. Look at one miracle of Elisha. When a seminarian's family was in debt, they asked to borrow an oil vessel.

I solved the problem with the oil bottle I had.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Be thankful even for small things. Being thankful is faith.

30.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막6:45-56) 1996.11.17 성례주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여전히 바다에서도 왕이시다. 영계의 왕이신 그분은 여전히 자연계에서도 왕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 그는 어떤 왕이신가?

1. 그는 기도의 왕이시다.

45-46절에 보면 그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제자들과 군중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 기도를 필요로 하셨던 것이다. 새벽기도는 그의 매일의 습관이셨다. 기도는 그의 모든 사역의 바탕이었다. 기도없이는 아무일도 하지않았다고 말할수 있다. 40일금식기도, 제자들을 선택할때나 십자가 질때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나사로를 살릴때에도 기도하셨다. 우리는 그가 왕이신데도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그 자신이 기도의 응답자가 아닌가? 그에게 기도는 무엇을 받아내는 요청정도가 아니었다. 대화정도가 아니었다. 바로 이 기도는 그에게 생명의 교통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생명을 나누는 깊은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있다. 기도는 무엇을 받아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Fellowship)라고 말한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 아주 성경적 개념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이며, 죽음이며, 저주이다. 기도없는 자는 식물인간과 같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왕권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필요로 하셨던 것이다.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과 권위를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능력있게 감당할것인가? 오직 그분과의 영교를 통해서 그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때 가능한것이다.

2. 그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다.

본문에는 네차례의 그의 전지전능하심이 증거되었다. 48 절에 "저희 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 멀리 떨어졌어도 아셨다. 전지하 신 분이시다. 49 절에 바다위를 걸으심" 자연법칙을 초월하셨다. 풍 랑 위를 걸어오셨다. 51 절에 바람이 그침, 그 분 앞에 거센 파도는 잔잔해졌다. 마귀의 역사는 그분이 좌정하면 잠잠해진다. 56 절에 옷 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음, 그분 앞에는 못할바가 없으시 다. 무한대의 능력자이시다. 오늘날도 주님은 못하시는 바가 없는 주 님으로 우리가운데 계신다. 여호수아를 보라. 그는 태양과 달을 머물 게 한것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엘사다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기어코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전능자이시다.

3. 그는 은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왕이시다.

53-56절을 보면 인간 편에게 강한 사모심으로 주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본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몰려왔다 웃가에라 도 손을 대기를 원하였다. 주님의 치료의 강수는 주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왔다. 마치 인간이 전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인협동 성취인것 처럼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위한 강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라. 감사의 달에 우리는 이 은혜의 주께 나아가 준비된 은혜를 받자.

30. He is the King of kings! (Mark 6:45-56) 1996.11.17 Sacrament Sunday

He who has power on earth is still king on the sea. Today's text shows that He, who is the King of the spiritual world, is still the King of the natural world.

What kind of king is he?

1. He is the king of prayer.

In verses 45-46, even though a miracle had occurred, he quickly dismissed his disciples and the crowd and went aside to pray. He needed prayer.

Early morning prayer was his daily habit. Prayer was the basis of all his ministry. It can be said that he did nothing without prayer. He prayed for 40 days of fasting, prayed when choosing disciples, carried the cross, prayed for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saved Lazarus. We ask the question, why does he need prayers even though he is the king? Is he not himself the responder of prayer? He did not ask his eldest wife what to pray for him. It wasn't much of a conversation. This very prayer was the communication of life for him. For him, the deep time of sharing life with God was the time of prayer. Today, the concept of Christian prayer is changing. Prayer is defined as receiving something, and is thought of as a conversation with God. However, the Bible clearly says that prayer is fellowship with God. So the term 'breathing of the soul' is a very biblical concept. To cease prayer is a sin, death, and a curse. A person without prayer is like a vegetable. He needed a deep relationship with Him in order to use the royal power entrusted to him by God solely according to the will of his Father. If He prayed, we need not say anything more. As royal priests, we have been given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change this world. How can we handle this competently? This is possible only when we receive the power that comes from Him through

communion with Him.

2. He is the omnipotent and omnipotent king.

In the text, his omniscience and omnipotence are evidenced four times. Verse 48 says, “He saw their distress and anger” - He knew them even though they were far away. He is the former Underworld God. In verse 49, “He walked on the sea,” He obeyed the laws of nature. He walked on storms and waves. In verse 51, the wind stopped and the strong waves before Him became calm. The work of the devil becomes quiet when He sits down. 56 Anyone who touches the edge of the temple is healed. He is infinitely powerful. Even today, the Lord remains among us as the sun and the moon. Look at what he did. The God of Elsadai who appeared to Abraham is the faithful Almighty who carries out his promises.

3. He is a king who delights in giving grace.

Looking at verses 53-56, we see the human side coming to the Lord with a strong desire and receiving God's grace. The rumor spread, and people flocked to him, even asking for his hand. The Lord's healing rivers continued to flow from Him. It seems as if humans work entirely. It seems to be an achievement of rookie cooperation. But this is what God does.

He goes forward with a strong desire for the Lord. In this month of thanksgiving, let us approach the Lord of grace and receive the grace He has prepared for us.

31. 영전승리자의 감사 (막7:1-13) 1996.11.24 추수감사주일

오늘 본문은 진정한 감사가 영적전쟁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진정한 감사의 삶은 내면의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 그리스도인 안에 계속되는 영적전쟁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하고 파수하지 못하게하는 원수와의 싸움을 가리 킨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손을 씻지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하셨다. 그 원 수는 누구인가? 마귀와 세상과 자아이다. 탐욕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유

•전"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려는 외식된 기질이 우리 앞의 고질적인 원 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하고 그 순수성을 잃을 때 외식하게된다. 그러므로 이 외식은 우리 내면의 영적싸움으로서 극복되어 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탐욕만족 을 위하여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다. 열문둥이의 행동을 보라 사마리아 문둥이만이 외식을 이길수 있었다. 감사생활은 인생의 순수성의 본래 상태 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사례하러 돌아오는 문둥이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한다.

2. 영적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해준다. (1) 주님의 교훈을 모든 삶의 영역의 절대표준으로 삼을 때 승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 바꾸치기했다. 이스라엘의 실패원인은 여호와와 명령을 전심으로 따라가 지 못하는데 있었다. 갈렙을 보라. 그는 온전한 충성자였다. 그는 승리자였다. 85세인데도 강건했다. 오늘날 미국을 정복하는 자는 누구인가? 주의 말 씀을 자기의 인생에 표준으로 삼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녀를 건 강하게 똑똑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이런 표준을 올바로 심어 놓는것이 급선무다. (2) 수직과 수평관계를 잘 지켜나감으로 균형 잡힌 삶을 이룰때 승리한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균형을 잃어버린데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두가 지는 모두 시행되어야 하지 어느 한쪽 만을 치우치는 것은 잘못이다. 마23:

23에 주님의 책망은 십일조도 드리며, 예배도 잘 드려야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야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섬 기는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야할줄 알아야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야하겠다. 감사를 배울때 태도가 달라진다. 청지기의 정신 으로 바꾸어질때 삶이 재미가난다, (3) 진실한 마음을 지켜나갈때 승리한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했다. 마7:에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 간다. 감사주일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리고 얼마 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지를 살펴보라, 마음에 감사로 채워지기 위하여 우 리는 나 자신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한다. 진실일관하는자에게 승리가 계속되며 거기에 찬양과 감사가 있다. 이 제사를 주님을 그렇게 받기원하신다.

31. Gratitude from the victor (Mark 7:1-13) 1996.11.24 Thanksgiving Sunday

Today's text shows people who have failed in the spiritual war of true gratitude, and the Lord tells us that a life of true gratitude comes to those who win the inner battle.

1. The spiritual war that continues within Christians The life of a Christian can be said to be a history of spiritual warfare. The war refers to the fight against the enemy who prevents us from honoring and protecting the Word of God. In today's text, in response to the Pharisees' question, "Why do you eat without washing your hands?" the Lord responded, "You have made the word of God null and void by the commandments of men." Who is that enemy? They are the devil, the world, and self. The "human nature" created by greed

- The hypocritical tendency to follow "the whole" more than the word of the Lord is a chronic enemy in front of us. This causes us to lose the purity of God's Word, and when we lose that purity, we become hypocritical. Therefore, this hypocrisy affects the inner self of us. It must be overcome as a spiritual battle. Today, we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purity has been lost. Look at the actions of the ten lepers. Only the Samaritan leper was able to overcome hypocrisy. The original state of purity, a life of gratitude to God and gratitude to one's neighbors, and above all, the faith of a leper who returns to give

thanks in gratitude for God's saving grace, must be restored to us today.

2. The secret to victory in spiritual warfare

So how can we win this fight? Today's text tells us three things. (1) We win when we make the Lord's teachings the absolute standard in all areas of life. They made void the commandments of God and made the commandments of men their doctrine. I changed it. The cause of Israel's failure was their inability to wholeheartedly follow Jehovah's commands. Look at Caleb. He was a complete loyalist. He was a winner. He was strong even at 85 years old. Who is conquering America today? He is confident that he can become a person who makes the Word of the Lord the standard for his life. It is important to raise your children to be healthy and smart, but instilling these standards in your children is an urgent priority. (2) You win when you achieve a balanced life by maintaining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The Pharisees' fault was that they lost balance.

It is important to give to God, but it is also important to honor your parents. Both of these should be implemented, but it is wrong to focus on only one side.

Matthew 23:

In 23, the Lord's rebuke was that one should tithe and worship well, but he should not abandon the righteousness, benevolence, and God that are within him. Therefore, those who serve God today must know how to think of the poor. I must live with gratitude without resentment or arguments. When you learn gratitude, your attitude changes. Life becomes fun when you change to the spirit of a steward. (3) You win when you keep your sincere heart.

He said he respected me with his lips, but his heart was far from me. In Matthew 7: It is not those who say, "Lord, Lord," that enter heaven,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On Thanksgiving Day, let's look at

how much we have to be thankful for and how much we live with gratitude. In order to fill our hearts with gratitude, we must break down the barriers in our own hearts. Victory continues for those who are consistent with the truth, and there is praise and gratitude. This is how the Lord wants to receive this sacrifice.

32.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막7:14-23) 1996.12.1 주

오늘은 어떻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하는지를 생각코자한다.

1. 모든 문제의 주범(main cause)은 속사람인 마음에 있다.

속사람인 마음이란 무엇인가? 애정의 좌소, 종교의 좌소, 지정의의 좌소이다. 하나님과 영적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속사람(Inner Man),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이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바울은 이런 싸움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이 나오기에 더럽힌다고 주님은 단언하셨는가? 21절에 악한 생각이라했다. 그안에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홀기는 눈과 체방, 교만, 광패가 나온다. 갈라디아5:에서의 육의 열매를 가리킨다. 바로 관리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 우리를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않고 속사람이 회복되지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된다. 그러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그의 삶은 근본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된다.

2. 속사람을 정돈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속사람의 흉칙한 아지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으심 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의에대하여 부활하심이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첫 아담의 실패로 남겨놓은 죄악의 모든 결과를 둘째 아담으로서 그는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누구든지 둘째 아담안에 있 는자는 이문제가 해결되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이 죄가 청결케 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쳤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들은 몰랐다. "죄를 심히 죄 되게하려고 주셨다".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오직 죄 인임을 알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구원얻게하려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다.

율법은 복음을 향하도록 되어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때문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하소서라는 간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은 결코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해하고 정결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실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당신은 주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받았는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은혜를 거저받는다. 지금 받아드리라. 시인하라. 감사하라.

3.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한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주께 붙어 있어라"고 했다. 그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더욱 더 그것을 강조해야될 시대이다. 오늘날처럼 성경관의 치열한 싸움이 없다. 오늘 주님은 그들과 논쟁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셨다.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말씀과 해석을 듣고 거기에 달라붙어야만 한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한다. 성령의 말을 들어야한다. 성경은 모두다 성령의 말씀이다. (딤후3:16) 에베소서 읽다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것을 깨닫아 "알아라"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 기쁨의 풍성함, 부활의 강력을 이미 받았다고 말한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믿음으로 내것으로 삼으면 된다. 성서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에스라의 결단이 이루기기를 바란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다. 바로 이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고 가정의 강건함, 개인의 강건함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2. Guard your heart (Mark 7:14-23) 1996.12.1 week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to strengthen the inner person with power.

1. The main cause of all problems lies in the inner person, the heart.

What is the inner heart? It is the seat of affection, the seat of religion, and the seat of justice. It is a place where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takes place. Paul referred to this as the inner man, or the man of the spirit. The lament, "Oh, I am such a miserable person," came from the battle between my inner self and my outer self.

Paul lived conscious of this fight. So what did the Lord declare that would come out of this and defile it? Verse 21 says it is an evil thought. In it, there are lewdness, theft, murder, adultery, greed, malice, deceit, lasciviousness, a seductive eye, lust, arrogance, and lust. Galatians 5: Refers to the fruit of Esau's flesh. The evil that comes from an unmanaged heart defiles us, makes us evil, and causes us to turn away from God. If you do not fear the Lord and

your inner self is not restored, the problem will continue. However, when the inner person is under the control of Christ, one becomes a person whose fundamental problems in life have been resolved.

2. To refine the inner man, he can do it only with the blood of Christ.

Christ came to this earth to clean up the hideous hideouts of our inner self and make us new people. His death on the cross was a death to sin, and his resurrection was a resurrection to righteousness. By dying once for all, he performed an eternal sacrifice. As the second Adam, he died in our place, taking on all the consequences of sin left behind by the failure of the first Adam. For whoever is in the second Adam, this problem has been solved. The Pharisees and scribes wrongly taught that this sin could be cleansed through human tradition. They did not know the purpose for which the law was given. “He gave it to make sin exceedingly sinful.” It's like a mirr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commandments is to recognize that we are sinners and to receive salvation through faith in God alone.

The law is directed toward the gospel. It was only because of the blood of Christ that David was forgiven of his sins. The petition, “Purify me with hyssop,” symbolizes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However, the Pharisees' purification law can never wash away sins. However, they misunderstood and were opposing Christ, the source of purity. When he washed Peter's feet, he said that there was no need to wash only his feet if he had already bathed. Are you cleansed of all your sins by the blood of the Lord?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receive this grace for free. Accept it now. Admit it. Be thankful.

3. To strengthen your inner self, you must stick to the word of Christ.

In the book of Acts, Barnabas said, “Cling to the Lord.” It means sticking to his words. Today, we live in an era where we need to emphasize that even

more. There is no fierce battle over views of the Bible like there is today. Today, the Lord called the crowd in a debate and taught them exactly this fact. He said, "Hear what I say and understand." We must here hear the Lord's word and interpretation and cling to it. We must learn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that strengthens our inner self. You must listen to the Holy Spirit. The Bible is all the word of the Holy Spirit. (2 Timothy 3:16) When we read the book of Ephesians, we hear the Lord's word there to "know" by understanding what has already been given to us. Something? They say that they have already received the hope of calling, the abundance of inheritance, and the power of resurrection. Our prayers must change. Therefore, we just need to confirm this in Christ through the Word and make it ours by faith. Today, Bible Sunday, we must consider whether the Bible we believe in has become "my beloved book." I hope Ezra's decision comes true. He said that after studying and obeying the word of Jehovah, he decided to teach. When we stick to this very word, all of our hard work will not be in vain and will become a family and personal strength, allowing us to become people who can open a new chapter of history in this era in which we live.

33. 숨길 수 없는 주의 능력 (막7:24-37) 1996.12.8

지난 시간에는 영적전쟁의 승리는 외식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마음을 진실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오늘은 이런 싸움의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보고한다. 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1. 주의 능력은 숨길수 없는 능력이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아왔다. 물위로 걸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군대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오늘 본문에는 두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25-30) 말씀으로 귀먹은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다(34). 그 결과 주의 능력을 숨길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일년동안에도 그 능력은 우리와 함께 일했고 지금도 그 능력은 함께 일하고 있다. 숨길 수 없는 주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된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안에서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폭발적인 능력으로도(행1:8) 보슬비 같은 능력으로도 일하신다.

섬세한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어려운 일을 하신다.

육신을 치료한 것도 어렵지만 영혼을 치료하는 일은 더 어렵다.

귀신들린자가 고침받는 것 보다 외식주의자가 고침받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실감하지 못할까? 첫째이유, 우리의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일곱마귀가 역사한다. 둘째이유,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셋째이유, 진실된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따르지않는다는 말이다. 기도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2. 주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두가지 중요한 조건을 필요로한다.

어떻게 그 능력을 맛보았는가? 1) 겸손이 있었다. 얄드 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아갔다. 개인이 겸손히 나아왔다. 소 수의 사람들이 나아왔다. 그는 자존심을 먹고 겸손하게 나아갔다.

교회의 직분은 겸손으로 이루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는 이 일에 실패한다.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책임을 지는 자이다.

대제사장의 겸손을 보라. 일반제사장의 겸손을 보라. 오늘날 교 회는 겸손할 때 책임을 다 할 수 있다. 그럴때 능력을 받는다.

2) 믿음이 있었다. 인정받은 믿음이었다.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나아갔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주님의 인정하는 것이었다. 간 구의 제목이 분명했다. 커신 좇아내기를 구했고 안수해 주기를 구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불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인정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란다.

우리교회는 숨길 수 없는 주의 능력 을 사모하고 그 능력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 야한다. 그러기에는 겸손과 역사하는 믿음이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다. 무궁무진한 능력을 그리스도안에서 발견한 우리들은 이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33. The power of the Lord cannot be hidden (Mark 7:24-37) 1996.12.8

Last time, I said that victory in spiritual warfare is to truly protect one's heart in the fight against hypocrisy.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power of the Lord, who is the source of infinite power in this fight. What is the power of the Lord?

1. The power of the Lord is a power that cannot be hidden.

In the meantime, we have seen what the Lord's power is like. He walked on water, calmed the storm with His words, and drove out the demons of the army and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with His words. Two events occur in today's text.

Casting out demons with the word (25-30) and healing the deaf with the word -Poetry is an event (34). As a result, it is said that the power of the Lord could not be hidden. That power has been working with us for a year and it is still working with us now. The Lord's power that cannot be hidden continues even now. How do you work? He works in the Holy Spirit. How do you work? He works both with explosive power (Acts 1:8) and with power like a drizzle. He strengthens the inner person with delicate power. You are doing a difficult job.

Healing the body is difficult, but healing the soul is even more difficult. It is more difficult for a hypocrite to be healed than for a demon-possessed person to be healed. Why can't we realize this ability? The first reason is because our times are evil. The seven devils are at work. The second reason is that our goal is wrong. The third reason is because there is no true prayer. It means not following the truth. This kind of thing cannot come out except through prayer.

2. In order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Lord, two important conditions are necessary. How did you experience that power? 1) There was humility. I fell down. He took responsibility and moved forward. The individual came forward humbly. A few people came forward. He ate his pride and moved on humbly.

The ministry of the church is accomplished with humility. Those who try to do it on their own will fail in this matter. Who is humble? He is the one in charge.

Look at the humility of the high priest. Look at the humility of the ordinary priests. Today's church can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when it is humble. That's when you receive power.

2) There was faith. It was a recognized belief. Even though there were tests, I went all the way to the end. It was the Lord's recognition, "For these words have been spoken." The subject of the request was clear. I asked for the great Lord to be driven out and for him to lay hands on me. Those who come forward with a proud heart or with unbelief cannot exercise that power. "These words." I hope you go away with the acknowledged faith that "I have done it." Our church must become a people who long for the Lord's power that cannot be hidden and enjoy living within that power. To do so, we must move forward with humility and a faith that works. The sky is the limit. We who have discovered a power in Christ must become those who experience this power.

34. 예수님 공흠을 배워라 (막8:1-10) 1996. 12.15

세속화된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한다. 성탄 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사색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무 엇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흠에서 흘러 나온것이다. 우리 본문 에서도 칠병이어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풍족히 먹인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흠의 샘에서 흘러 나온것이였다(1-2). 이 공흠 이란 어떤 것이였는가?

1. 그의 공흠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였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결과로 배부른 결과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권념하심으로 노아홍수의 비참함이 회복되었고 하갈의 눈이 뜨여 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였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의 정복 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흠로 된것임을 분명히했다. 누구에게 베푸 사랑인가? 큰 무리들을 향하여 공흠을 베푸셨다. 일반적인 은혜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공흠하심으로 살아간다. 더우 기 택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생명을 가진자로 살아 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의 공흠에서부터 흘러나는 귀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필요 한 주님의 공흠을 나 자신이 받아서 온 인류에게 나누어주는 유 복자로 살아가기 바란다

2. 예수님의 공흠은 사색적이였다.

그는 기진할 것을 아셨고 멀리서 온 자들도 아셨고 사흘이나 굶은 것도 아셨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시고 작은것도 귀하 게 여기셨다.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기적을 보라. 탕자의 변화와 선행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모두 구체적이고 사색적이었다. 우리는 이웃을 도울때도 그의 사정을 깊이 알고 도와주어야한다. 보리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마리는 얼마되지 않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은 엄청난 일을 이루는 도구였다. 하 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색적인 행동이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모습을 볼수 있지않은가? 이 사랑으로 목자없는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수 있게되었다. 우리는 이 런 긍휼로서 살아가야하겠다.

3. 예수님의 긍휼은 적극적이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긍을 가지셨다. 믿음으로 앉으라고 명하셨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이다. 그냥 큰 소리만 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적극적인 긍휼인지모른다, 이 공로 기적은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한다. 행동화된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한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이런 긍휼의 흐름이 강수와 같이 되

게해야한다. 이것이 성탄절에 배워야 할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십

자가의 사건으로 절정을 이 그의 사색적이고 적극적인 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긍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다.

34. Learn the mercy of Jesus (Mark 8:1-10) 1996. 12.15

We must immediately realize the original meaning of secularized Christmas.

Christmas refers to a contemplative and active act of God's love. Above all,

this flows from the mercy of Christ. In our text, the miracle of feeding more

than 4,000 people with seven bowls of food was something that flowed only from the fountain of Christ's mercy (1-2). What was this mercy?

1. His mercy was the source of all blessings.

As a result of Jesus' pity, a full stomach came. Through God's encouragement, the misery of Noah's flood was restored, Hagar's eyes were opened, and she discovered an oasis in the desert. Joshua also made it clear that the conquest of Canaan was achieved only through God's love and mercy. To whom is the love given? He showed mercy toward large crowds. Through general grace, both evil and good people live with God's mercy. Even more, He loves those whom He has chosen. Because of that great love, we died and came back to life and continue to live as people with life. Therefore, when we boldly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to receive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we receive precious grace that flows from His mercy. I hope to live as a blessed person who receives the much-needed mercy of the Lord and shares it with all mankind.

2. Jesus' mercy was speculative.

He knew that people would be exhausted, that they would come from far away, and that they would go without food for three days. And he told them to gather up the pieces that were left over, and he valued even the little things. Look at the miracle of Ghana's water being turned into wine. The prodigal son's transformation and the good Samaritan's actions were both specific and contemplative. When we help our neighbors, we must be deeply aware of their circumstances and help them. Seven barley loaves and a couple of fish are not much.

But through the love of the Lord, this was a tool that accomplished great things. God sending his only begotten Son to rule the whole world from this

earth was not an impulsive act, but a concrete and reflective act. Can't we see God's infinite mercy in this? Through this love, we who do not have a shepherd can live with hope. We must live with this kind of mercy.

3. Jesus' mercy was active.

Jesus had the pride of a high priest. He commanded us to sit down in faith. He said he would take responsibility. He is not someone who just shouts loudly. I don't know how positive the mercy was, but this palace miracle happened. We must be people of compassion. We must have action-oriented Gungheung. We must let this flow of compassion become like a river in our families, society, and churches. This is the important meaning to learn at Christmas. I hope you will enjoy his contemplative and active life that culminates in the event of the cross. Where there is mercy, there are miracles and victory.

35. 마귀를 이기는 방법 (벧전5:7-9) 1996.2.25 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당하는 고난 속에 마귀의 손길의 작용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적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수 있는지를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한다.

1. 마귀의 공격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아 이길수 있다.

베드로는 다음 세가지 형태를 말한다. 염려의 형태(마6: 요14:) 위협의 형태 그리고 고통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고난의 모습으로 성도에게 나타난다고 말할수 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라. 염려케하는 일들, 위협의 사건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청교도들은 위협속에서도 싸워나가 승리하였다. 당신의 삶 속에 마귀는 어떤 형태로 자주 찾아오는가? 이것을 파악하라. 견고한 진을 가진 이론의 세력으로 이미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한다.

2. 이 마귀를 이길수 있는 근거는 불들므로 이길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너 희를 권고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권고하심이 란 무엇인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위력을 적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이다. 그의 부활의 강력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그의 신실 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된것을 상징한다. 그들이 탄식할때 하나님은 권고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라. 이 길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빌립의 역사,

베드로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한다. 이것을 붙들때 당신은 온갖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3.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 나의 할일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세가지를 권한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믿음을 굳게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위탁하라는 말이다. 당신은 모든의 주권을 인정할때 마귀가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것이다, 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것이 더 실감있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믿음을 굳게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당신은 승리한 것을 알게될 것이다.

35. How to overcome the devil (1 Peter 5:7-9) 1996.2.25 week

Peter recognizes the work of the devil's hand in the sufferings Christians face and recommends them to resist it. So, at this time, I want to receive grace by thinking about how I can overcome the devil's attacks.

1. You can overcome the devil by knowing what his form of reverence is.

Peter speaks of three types: Types of Anxiety (Matthew 6: John 14:

) It is said that it appears in the form of threat and pain. In short, this can be said to appear to believers in the form of suffering. Look at the church in Acts. Concerning events, threatening events, and painful events occurred. The Puritans fought and won despite threats. In what form does the devil often come into your life? Figure this out. The powerful forces of theory have already taken over us. You should be able to see this.

2. The basis for overcoming this devil is that you can overcome it by holding on to it.

What is the only basis for overcoming the devil? There is only Christ and the merits of his cross. So Peter is letting us know that Christ advises you. What is Christ's counsel? This means that He wants to apply the power of His death on the cross. This means acknowledging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This means trusting in his faithful guidance. It symbolizes that when Israel was in Egypt, they became servants of the devil. As they lamented, God counseled them. Go forth in the name of Jesus. Trust in his merits and move forward. This is the way to overcome the devil. The history of Philip and Peter prove this. When you hold on to this, you can be liberated from the hands of all kinds of devils.

3. What should I do to overcome this devil?

Peter recommends three things. Cast your cares on the Lord. Be disciplined. Strengthen your faith and resist the devil. It means to entrust it. You will find that when you acknowledge the sovereignty of all, the devil flees. We live in an age where it seems more realistic that the devil attacks like a roaring lion. Strengthen your faith and resist the devil. You will know you have won.

36. 든든한 구원 (벧전5:10-11) 1996.3.4 주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순례자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여기에 베드로의 기대와 확신이 하나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나갈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 하신이 가 ...하시리라"는 신앙에서 나온것이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 지어다(11)".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찌하여 든든한가?

1.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에 든든하다.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부르신이 (소명)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이 (영화)가 되신다고 했다.(롬8:28-30) [예지-예정-소명-칭의-영화] 그리스도안에서만 되게하셨다. 엡 1:4-14 [선택, 예정/구속,통일/기업, 보증]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게하셨다. 비시티아 안디옥에서의 전토결과 후 현상이 나타났다. 영생받기로 작정된자와 영생받지않기로 작정된자로 나누어지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 이런 배경이기에 든든하다. 그러나 든든한 구원을 못받은 사람처럼 흔들거리는 신자가 너무나 많다. 왜냐? 율법안에 있기때문이다. 힘들고 낙심, 교만, 불평이 찾아온다. 그러나 은혜안에 있으면 쉽고 결손, 감사, 그리고 주께부르짖는다. 사울과 바나바의 권편을 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있으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적 접 대편하는 영적 자유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란다.
2.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완성하시기에 든든하다. "잠깐 고난받는 너희들"이라 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칼빈) 그가 친히 우리를 온전케, 군계, 강하고 전고제하시 리라.
이는 그가 천히 회복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가 친히
몰려오는 공격속에서 대적할 능력을 주신다. (성령과 기쁨 충만) 그리고
그가 친히 집을 세울때 처럼 우리 인생의 점을 견고 케하신다. 그러므로
튼튼하다. 수르팡야의 이스라엘을 보라. 하나님 이 친히 역사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느정도 믿 습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이루실분은 은혜의 하나님, 곧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도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다. 과거의 은혜의 하 나님은
지금도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써 그를 전하자.

36. Secure salvation (1 Pet 5:10-11) 1996.3.4 week

As we thought about 1 Peter, we thought about “the life of a Christian pilgrim who walks the path to glory through suffering.” Here is one of Peter’s expectations and assurances: Even in suffering, Christians must achieve victory and glory. The reason is that “•• Hasin is going to take the position.” “He will do it” comes from the faith. “May the power be with him forever and ever (11).” How secure is the salvation He has given us?

1. It is reassuring because it is salvation achieved by the God of grace. It is said that the one who called you in Christ (calling) into his glory becomes (glorification). (Romans 8:28-30) [Foreknowledge-predestination-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 It was made only in Christ. . App 1:4-14 [Choice, predestination/redemption, unification/corporation, guarantee] It was made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A phenomenon appeared after the battle in Vichytia Antioch. It is in God's decree that we will be divided into those who are destined to receive eternal life and those who are destined not to receive eternal life. So, our salvation is reassuring because it is against this background. However, there are too many believers who waver as if they have not received reliable salvation. because? Because it is in the law. It's hard, and disappointment, pride, and complaints come. But if you are in grace, it is easy, you feel gratitude, and you cry out to the Lord. Look at the section on Saul and Barnabas.

*Always be in the grace of God. I hope you live with spiritual freedom and joy as you face the Lord with an unveiled face.

2. It is reassuring because God Himself completes it with His power. He said, "You are suffering for a moment." The sufferings of the presen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the future. (Calvin) He himself will make us perfect, disciplined, strong, and thorough. This is because He slowly restores me, and He Himself (revives my soul) gives me the ability to withstand the onslaught of attack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joy) And He strengthens the foundations of our lives just as He Himself built a house. Therefore, it is reassuring. Look at the Israel of Surpanya. Didn't God himself work? To what extent do you believe in this God? The one who will achieve past salvation, present salvation, and future salvation is the God of grace, that is, the God of power.

Evangelism is about introducing this powerful God. Let us believe that the God of grace in the past is still the God of grace and will be our God in the future, and let us do our best to preach Him.

37. 참된 은혜 (벧전5:12-15) 1996.3.10 주

그동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었다. 십자가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한다.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주님의 교훈 의 한 모델이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부분에서 하나님은 무 엇을 말해주는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참된 은혜에 머물 러 살아가라"고 부탁한다. 거짓은혜가 있다는 말이다. 참된 은 혜란 고난 속에서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이다. 산소망이 있는 삶이다. 참된 은혜위에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 참된 은혜란 십자가의 길을 잘 가도록 주시는 은혜이다.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의식주와 자연혜택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일반은혜에 해당되고 성경만이 특별한 혜에 해당된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도 계속 은혜가 공급된다는 말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 다. 비상수단으로 돕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그네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른다. (히11:35-38) 그러므로 굳게서야한다. 그 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했다.

2. 참된 은혜란 진정한 교제로 나타난다.

(1) 문안하라고 했다. 마가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주인인 마리 아의 아들이었으며 베드로와 접촉이 있었던 인물이다.(행 12:

12) 1차전도여행때 바울과 동행했으며 베드로의 해석자로 사 역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여자)를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아 내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도 순교당했다. 교회는 개별적으로 심방할 수 있어야한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영적인 개별적인교 제였다.(행2:)

(2) 사랑의 입맞춤이라 했다. 사랑의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의식화시키지 않았다.(중세의 의식적 타락)

끈끈한 사랑의 결속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3. 참된 은혜란 평강충만으로 나타난다.

베드로는 평강의 복으로 끝을 맺는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찾아온다.

베드로 자신이 이런 복을 받았다. 마가의 다락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

스도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선택된자(1:1), 미리 아신자(1:

20), 그리스도가 대신 피흘려죽으자(2:24)인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할때 평강이 임한다. (갈2:20) 오늘날 이런 진정한 평강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참된 은혜위에 서서 이 평강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37. True Grace (1 Peter 5:12-15) 1996.3.10 Week

In the meantime, Peter showed us what a normal Christian life is. He says it is a life of carrying the cross. It was a model of the Lord's teaching,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What does God say in the last part of 1 Peter? He finally exhorts us to "live in true grace." This means that there is false grace. True silver is the grace given even in suffering. It is a life with an oxygen network. What does it mean to live on true grace?

1. True grace is the grace given to help us walk the path of the cross.

What is grace? It is a free gift from God. Food, clothing, shelter, natural benefits, and human conscience correspond to general grace, and only the Bible corresponds to special grace. Being saved is also a matter of grace, but this means that grace continues to be supplied even in life after salvation. There is grace to help in times of need. This means helping as an emergency measure. However, there are many hardships along the way of the traveler. (Hebrews 11:35-38) Therefore, we must stand firm. So Peter said, "Stand firm in this grace."

2. True grace appears through true fellowship.

(1) He told me to say hello. John Mark was the son of Mary, the owner of Mark's upper room, and had contact with Peter. (Acts 12:

12) During the first missionary trip, he accompanied Paul and served as Peter's interpreter. He is said to refer to the church (woman) in Babylon to Peter's wife in Rome. He too was martyred. Churches must be able to visit individually. The fellowship of the early church was a spiritual, individual fellowship (Acts 2:).

(2) It was said to be a kiss of love. It emphasizes the bond of love.

Peter did not make this ritualistic (medieval ritual corruption).

This means that there must be a strong bond of love.

3. True grace appears only as the fullness of peace.

Peter ends with the blessing of peace. Evaluation comes only when there is grace. Peter himself received this blessing. In Mark's Attic

He received the blessing of the Lord, "Peace be with you." This is possible only in Christ. The elect (1:1), the foreknew (1:1)

20), When Christ shed blood and died in their place (2:24), peace comes to them when they center on Christ. (Galatians 2:20) How many places are there

today that need this kind of true peace? We must stand on true grace and become those who share this peace with others.

38.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벧후1:1-2) 1996.3.17 주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행복한자로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선언이다. 그러면 행복한자란 구체적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힘으로 사는 삶이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받 으라고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 는가?

1. 섬기는 종이 됨으로서 받을수 있습니다.(1)

베드로의 신분은 자신을 가르쳐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다.

예수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 였지만 종으로서 있는 것 을 더 좋아했다. 그는 섬기는 자로서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보 면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받도록 권한다. 그는 발을 씻기는 자로 주님이 가르치실때 그것을 알았다. 섬김을 받으면서 신 앙생활하면 불행해진다.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교회가 은혜 와 평강이 넘치려면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려는자가 되어야한 다.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봉사로 섬겨야한다. 남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지배해야한다.

2. 참믿음을 과수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1)

그 믿음을 받은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제한되어있다.

무슨 믿음인가? 같은 믿음이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여야한다. 대상이 같고, 시작이 같고, 열매가 같아야 한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존귀한 믿음이다. 역 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하나님과 예수의 의로 난 믿음입니 다.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항상있 는 것이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다. 빌1:6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예수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르신다고 했다. 이것은 연단된 믿음이다.

3. 영적 지식 가운데 성장함으로서 받을수 있습니다. (2)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서 이 은혜를 받는다. 체 험적 앎이다.

에베소교회의 부흥운동은 말씀에 아는 운동이었다. (3년)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이다. 실제 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 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섬기는 좋으로, 참믿음을 파수 하는 파숫꾼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가운데 바로 성장해야만 하겠다.

38. God's grace and peace (2 Peter 1:1-2) 1996.3.17 week

It is an absolute declaration in the Bible that anyone who truly believes in Jesus lives as a happy person. Then, a happy person is a life lived specifically with the power of God's grace and peace. Today, Peter tells the believers about the true blessings and encourages them to receive this grace and peace. How can we enjoy God's grace and peace?

1. You can receive it by becoming a serving servant. (1)

Peter's identity was that he taught himself to be a servant of Jesus Christ. Although he was a sent apostle of Jesus Christ, he preferred to be a servant. As a servant, he tastes this grace and peace and encourages them to receive it. He knew it when the Lord taught him to be the one who washed his feet. If you live a religious life while being served, you will become unhappy. Be a servant. For our church to overflow with grace and peace, we must be willing to live as servants. We must serve with the word, serve with prayer, serve with worship,

and serve with service. The thought that others are better than me should dominate.

2. It can be received by defending the true faith. (1)

It is limited to bring grace and peace to those who receive that faith.

What kind of faith? It's the same belief. He must have the same faith as Abraham, David, Paul, and Peter. The object must be the same, the beginning must be the same, and the fruit must be the same. It is a precious faith. It is a noble faith. It is a faith that creates history. It is a faith born of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Jesus. Those who keep this faith will always have peace and grace. It is said that when we are weak, we are strong. Philippians 1:6 say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us will continue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This is a refined faith.

3. You can receive it by growing in spiritual knowledge. (2) We receive this grace by knowing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It is experiential knowledge. The revival movement of the Ephesian church was a movement to know the Word. (3 years) Evangelism is spreading God's grace and peace. In reality, we must be filled with God's grace and peace in order to evangelize. In order to do so, we must grow in the true knowledge of God through the good of serving and like watchmen guarding the true faith.

39. 이 놀라운 구원계획 (벧후1:3-4) 1996.3.24. 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란 "구원"의 삶외에 다른 것이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계획을 (롬6:) 알아라, 믿어라, 헌신하라는 세마디로 요약하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의 전체 계획을 다음 과 같이 말해준다.

1. 그 시작: 부르신 자를 앞으로 시작하고 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부르신자는 누구인가? 그는 영광의 주시다. (벧전2:9)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자이시다. 그는 덕(은혜)의 주님이시다. 십자가는 최대의 덕(은혜)의 증표이다. 바로 이 지식이 영생이다.(요17:2)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 요일5:11-12에 보면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신다. 이 영생을 그리스도안에 두셨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를 진실로 믿느냐? 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생의 감격이 있다. 유두 고가 죽었을때 사람들은 집중했다. 살았을때는 더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영생을 갖는다는 사실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며 최대의 사건이다. 영생이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니고 데모의 사건이 확인되기 바란다.

2. 그 방법

두가지방법을 본문은 제시한다. (1) 신기한 능력으로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말이다. (2) 그의 약속으로 되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이다. 오늘 우리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다. 우리가 논하는 것은 구원을 논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가?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다.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는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지 않는가?

3. 그 목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것을 받아누리는 자(엡1:3),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 지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것을 다했기 원하신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말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창1:26) 이것은 그리스도안에서만 회복된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목표에 도달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접할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볼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앞으로 시작하며, 성령으로 하게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자로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도초청집회는 바로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40. This amazing plan of salvation (2 Peter 1:3-4) 1996.3.24. main

A life full of grace and peace is nothing other than a life of “salvation.”

In Romans, Paul summarized the plan of salvation in three words (Romans 6:): Know, Believe, and Dedicate. However, Peter explains the entire plan of salvation as follows:

1. The beginning: It is said that the one who called will begin in the future. It

begins with the knowledge of Christ. Who is the caller? He is the Lord of glory. (1 Peter 2:9) He is the one who gave us entrance into wonderful light. He is the Lord of virtue (grace). The cross is the sign of the greatest virtue (grace). This very knowledge is eternal life. (John 17:2) It is said that knowing Christ and God is eternal life. In 1 John 5:11-12, only God gives eternal life. He placed this eternal life in Christ. Having Christ is having eternal life. So do you truly believe in the Jesus of the Bible? This issue is very important. It's like eating food. So there is the thrill of eternal life. When Yu Du Go died, people focused. Just as we received greater comfort when we were alive, the fact that we have eternal life is truly the greatest and greatest event. Eternal life is meant to be evidenced beyond time and circumstances. Our salvation begins this way. I hope Nigo Demo's case is confirmed.

2. How to do it

The text presents two methods. (1) It became a miraculous ability. This means that it was don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2) It was done according to his promise. This means that it is a precious and extremely great promise (word). Today, if we have a way, it is only the Holy Spirit, only prayer, and only the Word. What we are discussing is salvation. How can humans do this enormous task? We are just his tools. The Holy Spirit takes the lead. Doesn't the hand of prayer come down to your family and to you personally?

3. The goal

Our goal is to receive and enjoy everything that pertains to life and godliness (Ephesians 1:3) and to be filled with all that is God. God wants everything to resemble Him. So he said that our goal is to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e image of Christ is the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Genesis 1:26) This can only be restored in Christ. How have you reached this

goal? When people encounter the image of God, they are comforted and become happy. He said that when he sees Jesus, he is full of grace and truth. God clearly revealed His own plan of salvation. The goal is to start from now on, to be led by the Holy Spirit, and to become a happy person living in the image of God. The evangelism invitation meeting we are targeting is included in this plan.

41. 택하심을 확인하라 (벧후1:5-11) 1996.3.31 주

이시간 그렇게 된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선택 받은자인지를 열매를 통하여 알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수 있듯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알수 있다.

1. 왜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하는가?

택한자가 범하기 쉬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 영적 게으름 -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삶이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삶이다. 2) 어두운 영안 - 원시치 못한 신앙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이다. 3) 배은망덕- 옛 죄를 깨끗케함을 잊어버리는 삶이다.

개처럼 토한것을 다시 먹는 삶이다. 그리고 택한자가 계속 성장할때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실족치 않는다고 했다.

넉넉한 구원에 이른다. 당신은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세월은 지나가는데 무슨 열매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2. 어떤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하는가?

7 덕을 말한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다.

이 열매란 무엇인가? 인격적 열매이다. 내부의 열매를 말한다.

사람관계의 열매이다. 점진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이다. 베드로 자신이

본을 보였다. 이기주 의자가 이타주의자로 바뀌어진 삶을 가리킨다.

3. 어떻게 힘쓰라 했는가?

세가지 길을 보인다. 1) 더욱 힘쓰라.(최선을 다하라) 2) 공

급하라.(계속적인 성장을 하라) 3) 모든 열매를 맺히도록 힘 쓰라. (각각

모든 열매를 다 맺히도록 힘써라) 이런 열매가 있을 때 택한자임을

알게된다. 순종의 삶이다. 겸손의 도를 가는 사람이다.(마11:39)

종려주일,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섬기는 도를 배워야한다.

41. Confirm your election (2 Peter 1:5-11) 1996.3.31 Week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what the fruits of those who have become like that are.

Peter said that we can know whether we are chosen through our fruits.

“Therefore, brothers,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How can we know that we have been chosen by God?

Just as we can know a tree through its fruit, we can know it by looking at the fruit of those who have been saved.

1. Why should we strive to bear fruit?

This is because there is a risk that the chosen one can easily commit. 1)

Spiritual laziness - It is a life of laziness in knowing Christ. It is a life without spiritual warfare. 2) Dark spiritual eyes - This is an unsophisticated faith. It is

a life that is focused on what the eyes can see. 3) Ingratitude - It is a life that forgets to cleanse from old sins. It's a life like a dog eating vomit again. And

because there are blessings that come when the chosen one continues to grow.

He said he would never stumble at any time. Achieve ample salvation. The Lord has called you to bear fruit. What is that fruit? Isn't it a serious problem if time passes by and there is no fruit?

2. What fruits should we strive to bear?

7 Talk about virtue. He said to supply faith with virtue, virtue with knowledge, knowledge with self-control, self-control with patience, patience with piety, piety with brotherly kindness, and brotherly love with love. What is this fruit? It is a personal fruit. It refers to the fruit inside. It is the fruit of human relationships. It is a fruit that grows gradually. Peter himself set an example. It refers to a life transformed from an egoist to an altruist.

3. How did he tell us to work hard?

I see three paths. 1) Try harder. (Do your best.) 2) Supply. (Continue growth.)

3) Do your best to bear all the fruits. (Each of you should strive to bear all the fruits.) When you have these fruits, you will know that you are the chosen one. It is a life of obedience. A person who walks the path of humility (Matthew 11:39)

On Palm Sunday, we must learn the way of service that the Lord showed through His humiliation.

42.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다(벧후1:12-21)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외에는 아무것도 알 지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한일이 있다. 이말은 십자가만 생 각하고 부활을 생각치 않는다는 말인가? 도리어 이 말 속에 는 부활의 영광을 내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 활은 뗄수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거 짓이며 부활이 없는 죽음은 허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주님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할수 있으셨다. (요16:) 정말 약속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죽었 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구원계획의 전체 그림을 보고서 지금 그 영광을 말하 고 있다. 그 영광이란 어떤것인가?

1.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16-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했 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말한다. 크신 위엄으로 가 득찬 영광이다. 친히 목격한 영광이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맛보았고 사모하였던 영광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들이 참여할 영광이다.

2. 그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것이다. (1:1) 그리스도 는 영광 속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 하심으로 이 크신 영광을 드러내셨다.(히2:10)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최대의 증거였다. 2)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3) 기독교는 부활의 사건 위에 서게 되었다.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는가?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속에 부활의 강력이 있다고 했다. (엡1:13) 벧후1: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했다.

3. 이 영광을 맛보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수 있는가?

두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항상 생각하라 (12-15)고 했고 다른 하나는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의 약속을 주목하라고 했다.(19-21)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 계하신 약속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야한다. 당신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 약속을 놓치지 말 고이 영광과 능력을 내것으로 누리는 자가 되라. 변화산의 감격스러운 영광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자.

42. Think of the glory of resurrection (2 Peter 1:12-21)

Paul once said that he decided not to know anything except Christ and the cross of Christ. Does this mean that we only think about the cross and not the resurrection? On the contrary, these words contain the glory of resurrection. This is because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are inseparable events. This is because resurrection without death is a lie, and death without resurrection ends in nothingness. Therefore, the Lord was able to make a promise to his disciples that turned their tears into joy. (John 16:) Just as promised, the Lord die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en rose agai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Peter has seen the entire picture of God's salvation plan achieved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and is now speaking of its glory. What is that glory?

1. What was the glory of Christians that Peter saw?

In verses 16-18, it is called “the coming with the power of the Lord Jesus Christ.” This refers to the glory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It is a glory filled with great majesty. It is a glory that I personally witnessed. It is a glory that Jesus and the apostles tasted and longed for. This is the glory that Christians will participate in in the end times.

2. How is that glory given to Christians?

It came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1:1) Christ is in glory. However, Christ revealed this great glory by passing through death (Hebrews 2:10). In that sense, the resurrection of Christ has an important meaning. 1) It was the greatest proof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2) He became the first fruit of resurrection.

3) Christianity came to stand on the event of resurrection. Because of the resurrection, Christians participate in the glory of the Second Coming. Do you know that the power and glory of this resurrection has been given to you? Paul said that the power of resurrection already exists within the individual Christians. (Ephesians 1:13) 2 Peter 1 also says that Christians have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rough the power of resurrection.

3. How can one live as one who has tasted this glory?

Point out two things. One, always think while you are in the tent.

(12-15) and the other told us to pay attention to the promise of the Bible, which is a more certain prophecy. (19-21) This is the promise that made us

partakers of God's nature. Therefore, Christians must gain inspiration by reading the Bible. As you celebrate Easter, do not miss this promise and become the one who enjoys this glory and power as your own. Let us live while experiencing the thrilling glory of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43. 충성된 종아 (벤전5:1-5) 1996.2.18 주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 본문은 장로에 대한 권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장로들에게만 국한 된것이 아니라 그 리스도인의 직분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 는 줄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한 영광에 이른것이 그 리스도이라고 한 베드로는 곧이어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 하면서 이 직분은 고난에 참여한 직분이요, 영광에 참여한 직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시간에는 장로에 대한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그 영광된 약속을 생각함으로 은혜받고자 한다.

1. 직분의 의미

장로(특히 목사를 말함)는 양무리를 치는 직분이다(사랑의 감독) 그리고 그외의 직분은 장로의 지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직분이다. 그런의미에서 젊은 자들은 순복함으로 은혜생활을 하라고 했다(순종) 양무리를 친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나라를 세운 다는 말이다. 다시말하고 부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 셧다는 말이다.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구성되어있다. 행9:31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평안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교회의 직분은 목회자를 돕는 일 이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협력하는 일이다.

2. 직분의 방법

말은 자의 구할것은 충성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1) 자원의 심령으로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말라고 했다. 2)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나니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 나지않도록 해야한다. 3) 본이 됨으로 일해야한다. 주장하는 자 세가 아니다. 사울의 갈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직분에 진실되이 주님을 위해 섬겨야한다.

3. 직분의 약속

충성된 자에게 영광을 약속했다. 언제? 주님이 나타나실때에, 어떤 종류의 상급을? 시들지않는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이 곧 주님 자신에 대한 충성이다. 달란트비유속에 인정받은 착하고 충성된 좋은 누구였는가?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자에게 주어졌다.

당신의 직분은 존귀한 것이다. 그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가 받을 축복을 결정한다. 그러나 고난을 통한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충성일관으로 주님을 섬기자.

43. Faithful servant (1 Ben 5:1-5) 1996.2.18 week

The threefold office of king, priest, and prophet taught in the Bible continues today. Among these, the text gives us authority over elders. Here we can see that it is not limited to just the elders, but shows us what the right attitude toward Christian office is. This is because Peter, who said that Christ came to glory through suffering, then goes on to talk about the office of an elder and says that this office is one that participates in suffering and one that participates in glory. So,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receive grace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duties of an elder and thinking about that glorious promise.

1. Meaning of position

Elders (especially pastors) are responsible for shepherding the flock (overseeing love)

And other positions involve receiving and following the guidance of an elder.

In that sense, the young people were told to live a life of grace through obedience (obedience). Shepherding the flock means establishing a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In other words, the position was given to build up the father's body. The offices of the church are structured for this very purpose.

According to Acts 9:31, a church experiencing revival stands strong in peace and the number of disciples increases. The church's job is to help the pastor. It is a matter of cooperation in the word and prayer.

2. Method of office

What is required of those in charge is loyalty. What are the specific methods?

1) Do it with the spirit of resources. I was told not to do it out of necessity. 2)

The motive must be for the Lord. We must prevent misfortunes like Ananias from occurring. 3) You must work by setting an example. It is not a position to assert. God worked through Ananias to answer Saul's path. God wants to work through people. Therefore, Christians must serve the Lord faithfully in the duties they have received.

3. Promise of office

Glory was promised to those who were faithful. when? When the Lord appears, what kind of reward? He promised a crown that would not fade. Loyalty to the church, the body of the Lord, while on this earth is loyalty to the Lord Himself. Who was the good, faithful, and good person recognized in the parable of the talents? It was given to those who were faithful in the smallest things.

Your position is noble. How loyal you are to that position determines the blessings you will receive. However, we must not forget that glory comes through suffering. Let us serve the Lord consistently.

44. 고난은 영광의 관문이다 (벧전4:12-16) 1996.2.11

불시험을 당할때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기뻐 할 수 있느냐? 불시험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해야될 일을 바로 할때 기뻐할 수 있다.

1. 불시험이란? 아픔을 동반하는 시련을 가리킨다. 그래서 NIV 에는 painful trial(2)이라고 번역했다. 다시말하면 핍박과 위협, 주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17절 에는 하나님의 집에 시작된 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했다. 그러므로 이 불시험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나(15) 죄로인한 고난은 아니라고 했다. 신앙연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해 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다.

2. 불시험을 당한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 이상히 여기지말라고 한다(12). 어떤이의 말대로 자기옷과 자기밥과 자기 친우처럼 여기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동안 까닭없는 고난을 받을 자임을 알아라.

- 죄를 경계하라고 했다(15). 도리어 선행을 하라고 했다(19).

고난을 당할때 죄질기 쉽다. 십자가의 포기는 영광의 포기이다.

-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했다(13). 복있는 자임을 알라고 했다

(14).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다(16).

- 이런 시험을 당할때 이길 비결은 우리자신이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긴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저드슨은 기도하기를 굳게 결심하라고

했고 기도생활유지를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라고 했다.

스데반의 승리의 비결은 그 자신에게서 온것 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기에서 오는 능력으로 이것을 이긴것 뿐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삼아 불시험 당 할때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자.

44. Suffering is the gateway to glory (1 Peter 4:12-16) 1996.2.11

Christians can persevere when they are tested by fire. How can he survive? He can be confident when he knows the meaning of the fiery test and does what needs to be done correctly.

1. What is a fire test? It refers to an ordeal accompanied by pain. So the NIV translates it as painful trial(2). In other words, it refers to persecution, threats, being insulted, and suffering for the Lord. Verse 17 speaks of participating in the judgment that has begun on the house of God. Therefore, this fire test has an important meaning. Peter said that he was participating in the suffering of Christ (15), but that it was not suffering due to sin. It refers to suffering given for the purpose of refining one's faith. Therefore, Paul said that he worked hard to disperse the Galatian believers so that they would appear in the image of Christ.

2. What should be the attitude of someone who has been subjected to a fire test?

- They tell you not to think it strange (12). As someone said, treat something like your own clothes, your own food, and your own friend. Know that Christians will suffer for no reason while they live in this world.

-He told us to beware of sin (15). He instead told us to do good deeds (19).

It's easy to feel guilty when you're going through hardships. The giving up of the cross is the giving up of glory.

- And he told us to be happy (13). He said to know that he is blessed.

(14). He said to give glory to God (16).

- We must not forget that the secret to winning when facing a test like this is that we receive strength through prayer and victory. Judson told us to make a firm decision to pray and to make any sacrifices to maintain a prayer life. The secret to Stephen's victory did not come from himself. You can only overcome this by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using the power that comes from it. Let us all follow Christ's example and become people who can endure suffering well, knowing that the path to glory is when we are tested by fire.

45.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긴 자취 (벧전4:1-6) 1996.1.28 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때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야한다."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이해할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함으로 두가지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는 무슨 자취를 남겨주셨는가?

1.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처리해 주셨다.

청소차가 지나가면 그 뒤가 깨끗한 자취를 남기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는 축복을 안겨 주셨다.

3:18절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 가 대신 죽어주셨다. 1절에는 죄를 마치셨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 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죄책과 사망을 모든 처리해 주심 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공로를 무기로 삼아야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한다. 당신은 이 구원의 공로를 의 지하고 있는가? 기도할때 마다 가지고 나가라. 넘어졌을 때에도 가 지고 나아가라. 더 큰 승리를 위해서도 가지고 나아가라. 가장 약 한자라고 느낄때에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 될때마다 이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 공로를 의지하 지 않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2. 자기 백성의 승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다.

히 10:에 보면 새롭고 산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다. 이것은 주님 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열어 놓으신 길이다. 이 길은 구체적으로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는 길이다. 사람 의 정욕을

따름으로 실패한다. 거기에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우상숭배가 나온다.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다고 했다. 극한 방탕에 달음질했다. 바울은 그 결과를 사망이라 했다. 예수님도 그 결과를 가리켜 나와 상관없는 자라 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이방이 비난하고 하나님께 직고할 정도로 주의 뜻을 열심히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이 놀라운 자취를 이해하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무기삼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자가 될수 있다.

45. Traces left by Christ's suffering (1 Peter 4:1-6) 1996.1.28 week

When Christians suffer, they must use the suffering of Christ's body as their weapon. "Use the suffering of Christ's body as armor."

First of all, when Christians understand this, they can live according to God's will. Christ suffered and left two traces for us. What trace did he leave behind?

1. He dealt with all the sins of his people.

Just as a garbage truck leaves behind a clean trail, Christ's death on the cross gave us the blessing of washing away all our sins. In verse 3:18, Christ died in our place to bring us to God. He said in verse 1 that He has made an end of sin. This is to deal with all our past, present and future sins, guilt, and death.

Therefore, Christians must use the merits left by Christ as a weapon. He must wear the helmet of salvation. Are you relying on this merit of salvation? Take it with you every time you pray. Even when you fall, carry on. Go forward with it for a greater victory. Even when you feel like you are the weakest, go forward with it. Whenever you think this world is evil, rely on this merit and move forward boldly. Anyone who does not rely on this merit can never win.

2. He clearly showed the path to victory for his people.

Hebrews 10: It says that He prepared a new and mountainous path. This is the path that the Lord opened by dying once for all. This path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The first is the path of not following human lust. We fail by following human lust. From there come obscenity, lust, drunkenness, debauchery, liaisons, and idolatry. He said that he liv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Gentiles. He ran to extreme debauchery. Paul said the result was death. Jesus also said that the result had nothing to do with me. The second is the way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He showed us the way to follow the Lord's will so diligently that the Gentiles criticized our good deeds and reported them to God. By understanding this amazing trace, we can use his achievements as weapons to become those who achieve great history.

46. 좋은 날을 보려면 (벧전3:8-12) 1996.1.14 주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 했다. 의인의 가치는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수 없기 때문이다. 금년에 여러분 들에게 좋은 날을 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좋은 날이란 생명으로 충만한 날이다. 어떻게하면 이 날을 맞볼 수 있는 가? 베드로는 여러가지 말을 우리에게 권면한다. 두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1. 소극적인 면이 있다.

10절에 보면 시34편을 인용하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꾀함을 요구하지말고 악 에서 떠나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 말에 덕을 가지라는 것이다. 혀를 금하고 입술로 거짓과 꾀함을 구하지말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회롱 의 말과 누추한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언어생활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불, 불의의 병기, 길들일수 없는 야생말과 같다고 했다.

은혜받으면 말에 변화가 일어난다. 말이 많은 사람이 적어지고 적은 사람이 많아진다. 시와 찬양과 감사와 덕의 말로 전환된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2)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악이란 죄를 가리킨다. 이것은 끊는 용단과 아울러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한다. 악에서 떠나려는 욕의 삶을 보라. 아주 구체적이다. 말의 변화와 작은 죄 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려는 용단이 일어나야한다.

2. 적극적인 면이 있다.

9절에 나온다.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 하며, 악을 악으로 욱을 욱으로 갚지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했다. 이것을 넷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화평추구 -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것 2) 사랑추구 - 희생

3) 겸손추구- 온유와 겸손의 마음(마11:) 4)덕 추구 - 요셉처럼 복을 비는자가 되는 것이다.

요나단과 다윗관계처럼 아카페 사랑의 관계을 가지라는 말이다.

이런관계가 우리들의 관계이다. 주님이 만드신 이런 관계를 존중 할때 우리의 삶에는 좋은 날을 보게된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나무에서 나온 열매이기에 금년에 여러분 들의 삶에 좋은 날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언행에 있어서 작은 죄를 철저히 다루며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를 전심으로 추구하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46. To see good days (1 Peter 3:8-12) 1996.1.14 week

It is said that God listens to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a righteous person cannot be changed even by giving the world. I hope that the grace of seeing good days will be with you this year. A good day is a day full of life. How can I savor this day? Peter exhorts us with several words. It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1. It has a passive side.

In verse 10, he quotes Psalm 34 and says, "Whoever wants to see a good day,

let him refrain from speaking evil, let his lips not demand deceit, and turn away from evil.” What does this refer to?

1) Be virtuous in your words. It means to refrain from speaking evil and to keep your tongue from speaking lies and deceit with your lips. In Ephesians, we are told to use words of gratitude instead of mocking and vulgar words. James also tells us how important the integrity of our language life is for us. He was said to be like fire, a weapon of injustice, and a wild horse that cannot be tamed.

When you receive grace, a change occurs in your speech. There are fewer people who talk a lot and more people talk less. It transforms into poetry, praise, gratitude, and words of virtue.

Because what is in that person’s heart comes out.

2) It means to turn away from evil. Evil refers to sin. This requires a courageous decision to cut off, as well as an intentional hatred. Look at Job's life of trying to turn away from evil. Very specific. We must have the courage to fear and stay away from changes in words and small sins.

2. There is a proactive side.

It appears in verse 9. “Be compassionate, love your brothers, be compassionate, be humble, and do not return evil for evil or insult for insult, but rather bless.”

This was said to be the purpose of the calling. Thi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as follows.

1) Pursuing peace - Considering others better than oneself 2) Pursuing love - Sacrifice

3) Pursuit of humility - A heart of meekness and humility (Matthew 11:) 4)

Pursuit of virtue - Becoming a person who prays for blessings like Joseph.

This means having an acafe love relationship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Jonathan and David.

This relationship is our relationship. When we honor these relationships that the Lord has created, we see good days in our lives.

Because our salvation is the fruit of the tree of salvation, I hope that this year will bring good days to your lives. To that end, I hope that efforts will be made to thoroughly deal with small sins in words and actions and to wholeheartedly pursue the fruits of life as the people of God's kingdom.

47. 좋은 날을 보기 위하여 (벧전3:13-22) 1996.1.21 주

그리스도인은 좋은 날을 맞보기위하여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힘써야한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가?

1. 열심으로 선행을 이름으로 좋은 날을 볼 수 있다(13-15) .

선행을 힘쓰는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벧전
2:9) 선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지름길이다.

(마5:16) 오늘 본문에도 선행을 힘쓰라고 했다. 어떻게 힘 쓰라고 했는가?
의를 위해 고난 받는자가 됨으로, 고난 속에 서도 거룩을 지킴으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정도로 힘쓰라고 했다. 이것은 얼마나
열심있는 선행인가?

2.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할때 좋은 날을 볼수 있다.
(16-22)

선을 행함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선한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때에 가능하다. 선한양심을
가지라고 바울은 말했다. 이 양심은 우리 마음의 감찰기관이다. 이
표준을 잃어버리면 화인 맞은 심령으로 살게 된다. 세례의 의미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히11:22) 오늘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좋은 날을 볼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은 (22) 모두 열심있는 선 행의
표현이다. 전도는 선행중의 선행이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선행을 보이셨다(18). 당신은

선행을 어느 정도 열심히 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장래 좋은 것의
오는것을 미리 저축해 두는 일이다.

선행을 하되 열심으로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음과
승천의 결과를 바라보며 힘써야한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중 선행은
전도이다. 이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날을
누리며 살아가자.

47. To see good days (1 Peter 3:13-22) 1996.1.21 week

Christians must strive to do good deeds with a good conscience in order to
experience good days. How can we see good days?

1. We can see good days in the name of good deeds with zeal (13-15).

Striving to do good deeds is the purpose for which God has called us. (1 Peter
2:9) Performing good deeds is a shortcut to glorifying God.

(Matthew 5:16) Today's text also tells us to strive to do good deeds. How did
you tell them to work hard? By becoming one who suffers for righteousness
and maintaining holiness even in suffering, he told me to work hard to the
point where there are people who ask me the reason for my hope. How zealous
is this good deed?

2. You can see good days when you do good things according to a good
conscience.

(16-22)

Doing good is not one's ability. This is possible only when the Holy Spirit of
God speaks in our good conscience and lives according to it. Paul said to have
a good conscience. This conscience is the examining organ of our heart. If you

lose this standard, you will live with a seared spirit. The meaning of baptism is defined as a good conscience going toward God (Hebrews 11:22). We do not know how many people today have their conscience paralyzed.

3. We can see good days by following Christ's example and doing good deeds.

The events of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22) are all expressions of zealous good deeds. Evangelism is a good deed among good deeds. Christ once showed good deeds by dying for sins and going to the point of death (18). How eager are you to do good deeds? This is saving up for good things to come in the future.

We must do good deeds, follow our conscience with zeal, imitate Christ, and strive to see the results of his death and ascension. Among the good deeds of Christians, the best good deed is evangelism. Let us live and enjoy the good days in this world because we have this life of evangelism.

48.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10-23) 1996.4.14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에게 평강을 비 시고
부탁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것 같이 나도 너희 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셨다. 다시말하면 전도하러 가라 는 부탁이었다. 전도
대각성 집회는 은사받은 사람만이 해야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해야될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를 해야하는가?

1. 이 세상에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타나셔서"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셨다.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오늘 날 우리는
이 세상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힌 것 을 본다. 평강이
있어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다. 그런데 평안을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이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지 말고 이 순서를 고치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이 평화를 누리면서 이 평안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겠다.

2. 전도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제자들만 하라고 주신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우리가 포 함되어
있다. 교회를 가리킨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야만
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신자는 죽은 자로 살아 가는 자다. 모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한다. 바울처럼 누구 에게든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한 다. 오랜만에 전도나가니까, 복음을
모르는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하는 자들이기에 당당 하다.

1. 전도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차적인 실천이기 때 문이다.

왜냐? 이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길을 알 려주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죄용서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이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다른 목적에 서 이 모임을 가진것이
아니다. 계속 전도하는 일에 자각과 각 성을 갖고자 하는데 있다. 7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결심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48. Also send you (John 20:10-23) 1996.4.14

The resurrected Lord appeared to his disciples. He wished them peace and asked,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am sending you into this world.” In other words, it was a request to go evangelize. The evangelism awakening meeting should not be held only by those who have received the gift, but also by all Christians. Why should Christians evangelize? This is something every Christian who has experienced resurrection must do.

1. Because it is about spreading the peace of the Lord in this world.

The Lord appeared and said, “Peace be with you.”

Evangelism is spreading true peace. How blessed is this? Today we see that there is no peace in this world, and it is gripped by anxiety and nervousness. The Lord commanded that there be peac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peace. Anyone who accepts Christ as Lord can possess this true peace. And if you do not change this order, but correct this order, true peace will come. We must first enjoy this peace ourselves and then spread this peace to the world.

2. Because evangelism is not a gift.

Evangelism was not given to only the disciples. We are included among you. It refers to the church. Every church must go to this world. A believer who does not evangelize is living as a dead person. Everyone must live as one who has been sent. Like Paul, we must be able to say to anyone, "I want everyone to be like me." It's been a while since I've been evangelizing, so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on't know the gospel.

We are confident because we are sent directly by God.

1. This is because evangelism is the primary practice of becoming salt and light in this world. because? This is because it is the most practical way to show the way to solve sin,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is world. Evangelism teaches the secret of receiving forgiveness of sins. This time, our church did not hold this meeting for any other purpose. The goal is to have self-awareness and awareness in continuing to evangelize. I hop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decide to achieve your seven goals.

49. 주 안에서 효도하라 (출20:12) 1996.5.12.

권위부정시대에 제 5계명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함께하기 바란다. 노아의 세아들의 장래가 무엇으로 결정되었는 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 효도의 대상

"네 부모"라고 했다. 네 부모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권위를 섬기는 일을 강조한 말이다. 가정 세워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태도임을 보인다. 네 임금이나 네 상사를 말하기 전에 네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명하셨다.

세가지 부모가 있다. 1) 육신의 부모 2) 사회적 부모, 부모와 같은 연령의 사람들이나 사회의 권위들을 가리킨다. 3) 영적 부모, 이것은 영혼을 지도하는 교역자를 말한다.

영적권위를 인정할때 그만큼 행복해 진다.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가까와지기 때문이다.

2. 효도의 방법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1) 공경하라. 높은 권위를 인정하라. 부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부모는 영권을 가지고 기도할수 있어야한다.(야곱)
- 2) 순종하라. 그의 말을 즉시 들어주라는 말이다. 무엇을 대접하는 것보다 말에 대한 순종을 하라는 말이다.

3) 기쁘게하라. 방법을 찾아보라. 바쁘다는 것으로 핑계대지 말라.

4) 주안에서 행하라. 예수믿게하고 예수 더 잘 믿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기독교만큼 효도의 종교는 없다. 엄격하고 철저하다. 부모에 대한 구타, 우롱, 비난등은 모두 사형에 해당하다고 가르친다.

3. 효도의 결과

약속있는 첫계명이라 했다. 땅에서 잘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큰 축복을 얻기위하여 우리는 이 계명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튼튼히 지켜나가야한다. 오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권위를 사랑하고 효도함으로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유복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 우리들은 이민의 과도기의 긴장으로 이 계명을 무시하기 쉽다. 이때야 말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며 나아가자.

49. Be filial in the Lord (Exodus 20:12) 1996.5.12.

In this age of denial of authority, I hope that we will have the grace to deeply engrave the meaning of the Fifth Commandment in our hearts. What determined the future of Noah's three sons? It seems to depend on how one serves God and one's parents. So God's command to honor your parents has important meaning. Let's think about what that means.

1. Object of filial piety

“Your parents,” he said. Your parents are words that emphasize serving the authority closest to you. It shows that acknowledging God's authority in

establishing the family is an attitude towards God. Before speaking of your king or your superior, he commanded you to be filial to your parents.

There are three parents. 1) Physical parents 2) Social parents, refers to people of the same age as parents or authorities in society. 3) Spiritual parents, this refers to ministers who guide souls.

The more you recognize spiritual authority, the happier you become. Because it is a job of service. Because it brings us closer to Jesus.

2. Method of filial piety

He told us to respect him in the Lord. What does this refer to?

1) Be respectful. Recognize higher authority. Parents' blessings should be treasured. Parents must be able to pray with spiritual authority. (Jacob)

2) Obey. This means that you should listen to what he says immediately. This means that you should obey what is said rather than what you serve.

3) Be pleasing. Find a way. Don't make excuses by saying you're busy.

4) Walk in the Lord. We must prioritize making people believe in Jesus and believing in Jesus better.

There is no religion of filial piety as much as Christianity. Strict and thorough. It teaches that beating, mocking, and criticizing parents are all punishable by death.

3. Results of filial piety

It is said to be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It goes well on land.

Live long on land. To obtain this great blessing, we must love this commandment and keep our families strong. In order to enjoy the blessings of the Five Commandments, we must love our spiritual authority and live as the happiest and most prosperous people through filial piety. It is easy for us to ignore this commandment under the strain of immigration transition. Let us

not forget that this is our opportunity to receive blessings by keeping this commandment, and let us move forward by actively obeying this commandment.

[The end of pastor Jeon living stream Book 2 (1996)]

Soli Deo Gloria